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955호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본격화

국토부 19일 기본계획 확정 고시… 2307억 들여 2024년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인 계룡에서 신탄진을 잇는 1단계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받은데 이어, 오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가 70%와 대전시가 30%의 비율로 2,3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계룡~신탄진(35.4㎞) 구간을 잇는 기존선 개량형의 광역도시철도이다.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으로, 이중 도마, 문화, 용두, 중촌, 오정, 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하게 되고, 계룡, 흑석, 가수원, 서대전, 회덕, 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광역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한다.

이 중 가수원, 도마, 오정역은 2호선(예정)과,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의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선로는 현재 호남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되,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경부선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차장에서 회덕 4.2㎞ 구간을 복선으로 증설하고, 회덕에서 신탄진 5.8㎞ 구간에는 단선 추가한다.

차량은 1편성당 2량씩 편성해, 1일 65회 편도로 운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달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충청권광역철도가 완공돼 운행하게 되면 신탄진, 계룡 등 대전 외곽에서 대전역, 둔산 등 대전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이동하는데 35분 정도가 소요돼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 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되며, 12호선(예정)과의 환승을 통해 신탄진 등 대전 어느 곳에서나 대전 도심으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예정)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논산, 청주공항까지 연장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혁신도시 지정으로 '충남 역차별' 풀어야"

양승조 지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내포신도시서 현장간담회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가진 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현장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에서 양지사와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과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공동위원장, 윤일규 · 강훈식 · 이규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국토부에서 장영수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압축성장 신화를 이뤘으나,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와 기업 등 모든 역량과 자원을 흡수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왔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간 갈등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그동안 있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균형발전의 대의에 앞장섰던 충남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양 지사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세종시 분리 당시, 충남은 9만 6000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고, 면적은 399.6㎢, 지역내총생산은 1조 799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최근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함께 이해찬 대표가 발표한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점차 그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며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육성을 통해 충남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어떤 공공기관이 당장 입지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도시건설을 위한 비용도 들지 않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기업과 대학, 각 기관 · 단체가 융복합 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내포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실천지이자 성공적인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지난 10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여야를 넘나드는 공감을 확인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노력 부탁드린다"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기자

먼지먹는 하마 분진흡입차 내년 도입

대전시, 내년 7월 본격 운영… 사업비 국 · 시비 확보

대전시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분진흡입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17일 '분진흡입차 도입' 사업으로 국비 8억 4천만 원을 포함한 21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량구입과 시운전 등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자치구의 노면청소차, 살수차와 연계해 도로 위 분진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 위 분진은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에 의해 발생하며 대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총 발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분진흡입차는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도로의 분진을 빨아들여 내부필터를 통해 걸러내고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도록 제작된 분진제거용 전문차량이다.

특히, 노면청소차, 살수차에 비해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2~3배 정도 우수하고 청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겨울철 이용에도 제한이 없어 이미 서울, 부산 등에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분진흡입차 7대를 투입, 8차선 이상 도로 및 대기환경이 열악한 대덕구 산업단지 도로를 대상으로 주 2회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향후 저감효과를 분석, 운영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태 기자

조합장선거 관련 연말연시 특별 예방 · 단속 실시

대전 · 세종 · 충남선거관리위

대전 · 세종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연말연시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 ·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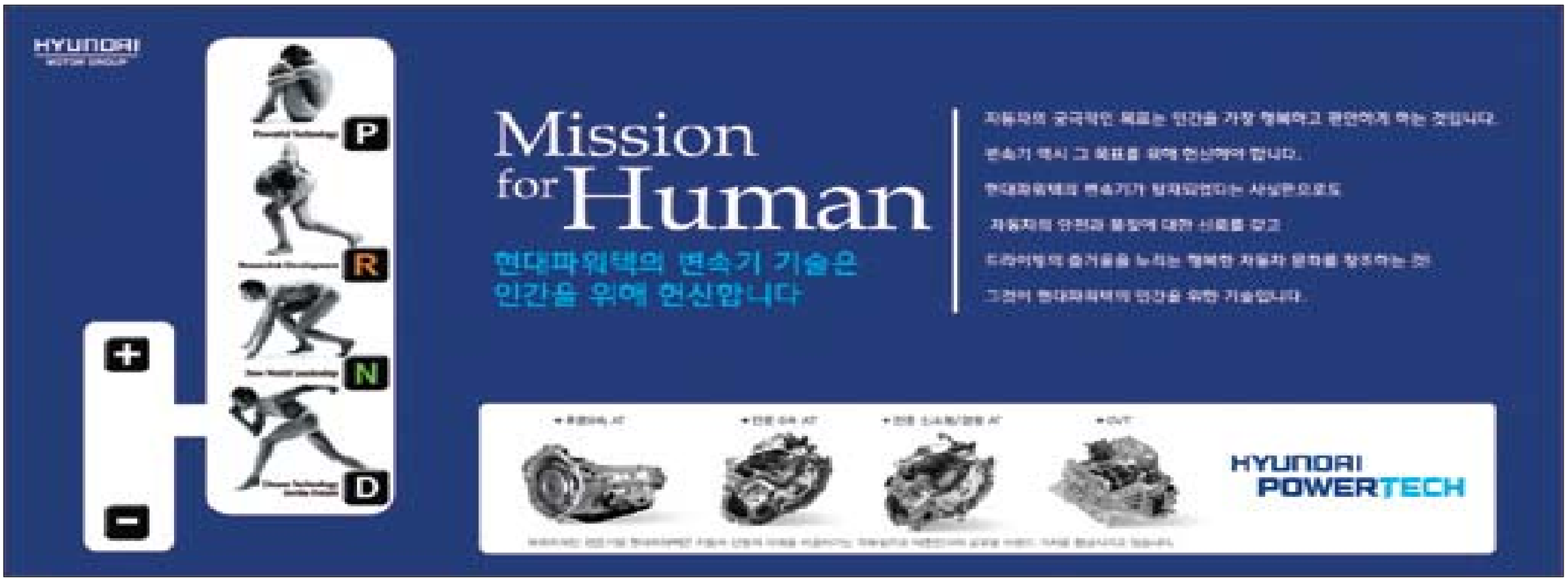
대전 · 세종 · 충남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 · 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 ·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도정과 협치는 하되 건강한 긴장관계 필요"

충남도의회 민주당 정기총회 개최

제11대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김연 의원)들이 16일 저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평가 시간을 가졌다.

김연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대 도의회가 출범 이후 우리당 의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새롭게 보여줬다"며 "오늘 정기총회를 통한 평가자리에서 서로 간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로 더 발전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병국 의장도 축사에서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으로 도정의 동반자이고 충남발전의 한축"이라며 "협치는 하되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며 도민에게 신뢰 받는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5분발언과 도정질문, 조례 제·개정,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6개월간의 자체평가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9년도에는 연구모임, 의정토론회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 제·개정 및 예산편성 등 실질적 정책으로 환류하는 횟수를 늘리자는 결의를 하였다.

더불어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스터디의 필요성 및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눴다.

충남도정의 주요 정책사업은 정례적 당정협의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기총회를 마치며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년 뒤 도의회나 도정 등 충남의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힘쓰자"고 결의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 가져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17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김종천 의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종 구호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적십자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의정연수 실시

사례 중심 강의, 관광문화 정책개발 위한 벤치마킹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의원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주요일정으로 연수 첫째 날은 초선의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4년간 소중한 의정활동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은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전략과 조례안을 쉽게 심사하고 제정하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관광문화 정책개발 벤치마킹을 위해 카멜리아힐, 환상의 숲 곶자왈, 오설록 티 뮤지엄 현장을 견학했다.

셋째 날은 시장현대화사업 현장 벤치마킹을 위해 동문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제주 구도심 벤치와 관광문화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선녀와 나무꾼, 돌문화 공원을 견학했다.

특히, 공주시가 구)공주의료원을 철거하고 공주목 관아로 복원하여 공주목에 있었던 혜의당, 향사당, 군관청, 작청 등 주요 전각을 복원할 계획이어 의원들은 복원된 제주목 관아를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둘러보며 공주목 관아 복원과 연계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연수를 마친 이맹석 의회 운영위원장은 "쉴 틈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다보니 힘들긴 했지만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활력이 생겼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며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김소연 의원 '제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날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제5차 윤리심판을 열고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1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에 대해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했다.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 <당규 제2호>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와 <당규 제7조> 윤리심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①항, 제4, 5, 6, 7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제명 심판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정환기자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지역구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산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범죄 및 재난 사고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태안지역은 현안사업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에 7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식수난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상수도 보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안군 해수욕장 갑시탑 건립에 3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수욕장에 생기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름철 안전한 관광지로써 입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지역의 재난 예방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주민이 겪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강훈식 의원, 아산농업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가져

이상민 의원, 창업동아리 활성화와 우수팀 지원방안 모색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과 이상덕 시의원이 함께한 '아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가 16일, 인주면(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렸다.

이는 강 의원의 릴레이 정책 토론회 '아산을 듣다'의 세 번째 순서로 열린 토론회다. 강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12월 한 달간 총 다섯 번의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시도의원과 함께 주최한다.

아산시 농업은 열악한 상황이다. 아산시는 평균연령은 38.1세(2016년 12월 말 기준)로,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도시지만, 농촌의 상황은 다르다. 아산시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2015년 기준 65.8세에 달해, 농업 후계자 양성이 시급한 게 현실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업 브랜드도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아산 농업의 문제점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정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은 아산시 농업의 전반적인 현안을 짚고, 장명진 아산제터먹이 이사장은 쌀 목표가격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도일 농촌 지도자 회장은 아산 농업인들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으며, 김민태 아산시 4H 청년회장은 젊은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정책적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운휘 원예농협 유통센터장은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판로를 구축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한기영 아산을 농업인 정책특보는 구조적으로 아산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짚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는 약 150여 명의 농촌 지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약 2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반도 정세 토론회 : 2018 평가 및 2019 전망'

천정배 연구원장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간의 협상에 보다 분명한 입장 정리 후 관계 당사국 설득해 나가야"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특사 교환, 4.27과 5.26 판문점에서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이지만,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미중무역전쟁 본격화 등 국제정세 또한 매우 가변적이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17일 '한반도 정세 토론회 : 2018 평가 및 2019 전망'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현준 부이사장 (한반도평화포럼) 사회로 ▲이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김갑식 연구위원(통일연구원)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가 발제자로,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이동률 교수(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정창현 소장(한국현대사연구소)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근 교수는 발제에서 "국제질서가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시대의 도래로 과거의 냉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냉전이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 미중 간에 생겨나는 등 엄청난 속도로 매우 다른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북철도 연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통일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 매달려 정작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못 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후대에게 또 한 번의 구한말, 즉 신한말을 물려주는 죄인이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떠한 국가들과 연합을 할 것인지, 그에 맞는 외교전략은 어떻게 짜야할 것인지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식 연구위원은 "2019년 상반기는 한반도 평화무드가 지속되느냐 반동으로 돌아서느냐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말하며, "북미 군사적 대결시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할 가능성이 크며, 생활개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주민지지 이탈 가능성, 국책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여 김정은이 딜레마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가전략 노선을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미흡 및 병진노선으로 회귀한다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며, 이는 백두혈통과 빨치산혈통(최룡해) 권력 조합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대북제재 지속에 자력갱생으로 대처하여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어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정상국가 이미지 제고 및 적대시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①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상응조치(종전선언, 제재완화, 관계개선)를 교환하는 협상의 본격화, ②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북핵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관리와 현상유지의 지속, ③ 미국본토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만 해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대중국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평화프로세스, 평화이니셔티브)에 대해 공감하는 등 남북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가 높아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제재를 지속하면서 현상유지정책으로 일관할 경우에도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현상유지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면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야 하고, 남북관계 진전은 현상변경과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성구기자

공주시의회 박기영의원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공주시의회 박기영 의원이 '2018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 효과성 등을 평가해 행정정책과 의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행정단체와 우수의원을 선별하여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박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행복도 증가를 위한 의정활동 및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요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주=정상범기자

조경태 의원 '도로법·건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7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에 안전표지 및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건축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차구매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승차구매 시설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현재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의 여러 업종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와 승차구매 시설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 보행자 충돌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드라이브 스루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보행자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44.6%는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승차구매 시설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 안에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자동차 진·출입로와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비하다"며 "특히 어린이 통학로에 승차구매 시설이 생길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야든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철수기자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의정발전연구회, 강연회 개최

곽현근 교수 '지방자치법 개정과 풀뿌리민주주의' 주제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김창관) 의원연구단체인 서구의정발전연구회(대표의원 조규식)는 1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의원은 김창관 의장을 비롯해 조규식 대표의원, 이선용, 김영미, 강노산, 서다운 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강연에는 서구의정발전연구회 회원과 서구마을넷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이해, 자치분권 정책방향, 사회적 자본과 지역공동체 의의, 풀뿌리주민자치 제도화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김정환기자

논산 계룡 축협 발전 새 지평 열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논산계룡축협 임영봉 조합장

농 · 수 · 축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전국동시에 치루게 된다. 현재 논산계룡축협 임영봉 조합장(70)이 "조합원들을 위해 할일이 남았다"며 출마의지를 내비쳤다. 임 조합장은 17년째 논산계룡축협 조합장을 수행하면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등 여러 상을 받았으며, 2018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한돈 브랜드인 '장군포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임 조합장 좌우명처럼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즉,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40여년간 축산업에 몸담아 온 임 조합장은 지역 주민들과 폭 넓은 인간관계를 앞세워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논산 계룡 축협 발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임영봉 조합장은 한때 건강 이상설이 나돌면서 물출마 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었으나 지난 12월 12일 오전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2019년도 순회 모금장에서 만난 그는 그간 나돌던 와병설이 무색하리만큼 건강한 모습을 과시, 주변의 시선을 모았다. <편집자주>

임영봉 조합장은 그간 논산 계룡 축협의 육성 발전을 위해 숱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조합원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 말은 내년선거에 반드시 출마한다는 뜻으로 내비쳤다.

사실 지난 17년 동안 임영봉 조합장이 이끈 논산 계룡 축협은 명실 공히 논산 계룡축협을 전국 최고 반열에 올려 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산축협이 운영하는 '장군 포크'는 8년 연속 전국 축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했는가하면 지난 10월에는 논산계룡축협의 브랜드인 장군포크(돼지 포장육)가 HACCP 황금마크인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 · 가공 · 유통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작업장 · 업소 또는 농장이 각 단계마다 모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HACCP 황금마크(통합-43호)를 받은 논산계룡축협 '장군포크'의 적용품목은 돼지 포장육으로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업소 및 농장은 20개소에 이른다. 지난 2002년 도축장 HACCP인증을 시작으로 농장(17개소), 식육포장처리장(1개소), 판매장(1개소) 등 20개소에 HACCP인증을 받았다. 논산계룡축협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받기 위해 지난 2015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구. 축산물인증원)과 MOU를 체결한 뒤 지난해부터 조합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HACCP인증원의 현장 기술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논산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산 분변의 30%를 처리하는 세 곳의 자원순환농업센터도 기대이상의 운영 실적을 올리고 있어 타 축협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준공한 자연순환농업센터는 2011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논산시 전량)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가스 시설까지 갖춰 자연순환농업에서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까지 견학을 오는 명소가 됐다.

자연순환농업센터는 하루에 가축분뇨, 음식물, 농축산부산물 등 150톤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하루 8000~1만㎥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1만 44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해 연간 3억6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 퇴비는 하루에 32톤, 액비는 120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한 퇴비와 액비는 논산시 전역의 논에 뿌려진다.

임영봉 조합장이 야심적으로 추진해 문을 연 장군마트도 1일 매출실적 7000만원에 달할 만큼 성공적인 사례에 꼽히고 300억 원 예산을 투입,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연무 신화리 축산물 유통센터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영봉 조합장은 이제 축협은행의 신용사업 확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논산계룡축협의 오늘이 있기까지엔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무한 신뢰와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에 배치된 270여명 전 직원들이 “내가 리더이며 내가 주인이다”라는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신[信]이라는 한글자의 믿음 하나로 단합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사랑의 성금 모금장에 논산 계룡축협 가족의 이름으로 성금 1000만원을 선뜻 기탁하기도 한 임영봉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심지어 축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조합원들의 생일 까지도 챙기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 해왔다.

또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논산시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동지팥죽 나눔 행사 등 나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매년 논산시가 개최하는 어르신의날 행사 때는 공설운동장 읍면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을위한 반찬용 고기를 제공하는 등 사회 헌신에도 앞장서 왔다.

임영봉 조합장은 "그동안 광석면 자원 순환센터 또 일부 돈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관련 , 조합은 나름 최선을 다해 왔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도 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논산계룡축협은 관내 전 축산 농가를 상대로 전국 제일의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을 제일의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구 기자

●동 정●●●

2018 대전 혁신 교육 포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8일 오후 2시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18 대전 혁신 교육 포럼'에 참석.

마을공동체 한마당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18일 오후 2시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리는 2018년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한마당에 참석.

천사의 손길 기탁식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 18일 오후 3시부터 구청장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등 천사의 손길 기탁식을 개최.

효문화마을 어울림한마당

박용갑 중구청장= 18일 오전 9시 30분 효문화마을관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효문화마을 어울림한마당'참석.

저소득층 지원 성금 기탁식

장종태 서구청장= 18일 오전 11시에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MG 새마을금고 저소득층 지원 성금 기탁식'에 참석.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

정용래 유성구청장= 18일 오후 5시 20분 라온컨벤션에서 열리는 유성구 사회적 경제 성과보고회에 참석.

소통채널 걱정말아요 대덕행사

박정현 대덕구청장= 18일 오전 10시 오정동 아임1리터커피숍에서 세 번째 '소통채널 걱정말아요 대덕' 행사를 열고 주부들과 소통.

광고문의
(042)538-3030

허태정 시장, 주간업무회의서 조직기강 확립 · 인사개편 필요성 강조

"조직기강 위해 내주까지 인사개편"

허태정 대전시장이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주까지 인사개편을 단행할 뜻을 내비쳤다.

허 시장은 17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여러모로 볼 때 우리시 조직이 협업을 통해 잘 돌아가도록 조직기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빨리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이번 인사는 가급적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 다음 주까지 완료토록 하겠다"며 "새해를 맞이할 때 안정된 상황에서 시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사와 공단 개혁과 관련해 "여기에 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 내년 개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 시장은 인사와 관련해 실질적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업무가 원만히 이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허 시장은 "업무 인계인수는 단순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관계망까지 전해져야 한다"며 "업무진행요소와 사람관계, 관련 스토리까지 모두 인수인계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허 시장은 KTX 서대전역 감차, 트램 예타 면제사업 추진, 월평공원 공론화 등 중요 현안이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여러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우리가 맞닥뜨린 주요 현안은 경우에 따른 대응논리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담당부서는 인계인수에서 흐트러짐 없도록 완벽한 작업대를 갖춰놓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리적인 안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최근 이룬 내년도 사상최대 국비확보 성과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식 공유 방법과 논리개발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많은 직원들 노력 덕분에 역대 최고 국비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우리가 이룬 사업 하나하나의 내용을 먼저 내부구성원이 이해해야만 단순히 국비 얼마냐가 아닌 어떻게 중요한 사업인지 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기자

유성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청년정책에 반영 · 추진 소통창구로 2년 동안 활동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성구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하기 위한 소통창구로 활동하게 될 '유성구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12명이고, 모집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자격조건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유성구에 사업장이 있는 청년사업가, 유성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중인 청년, 유성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선발된 청년네트워크 위원은 일자리, 생활안정, 문화예술 3개 분야에 걸쳐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기획실(042-611-2870)로 문의하면 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구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동구, 15개 유관기관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 집중‥신바람 나는 동구 만들터"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7일 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15개 유관기관 대표들과 함께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 자활센터, 관내 대학, 사회적 협동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시책 홍보 상호 협력 ▲애로사항 해소 및 협력 지원 ▲정기적인 정보교환 등이며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일자리대책의 효율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구는 지난달 19일 각 부서장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일자리 매니저로 지정하고 아이디어 보고대회 개최를 통해 50건의 시책을 발굴하는 등 추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들이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동구형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신바람 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성모병원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

종양혈액내과 · 내분비내과 병동 40병상 추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17일부터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한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정형외과, 외과 병동 38개 병상을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종양혈액내과, 내분비내과 등 내과계 병동 40병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대전성모병원은 전 병상을 전동 침대로 교체하고 환자 감시 장치를 비롯 낙상 방지를 위한 낙상 감시 센서, 환자 이동 보조 안전바 등의 시설환경을 개선했다.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활동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감염률 저하 및 욕창과 낙상 등의 환자안전 지표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김용남 병원장은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입원환자의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초등학생 대상 관내 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동구, 오는 20일부터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20일부터 방학기간 도서관과 가까워지고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강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특강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유익한 내용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며, 가오, 용운, 무지개, 가양, 성남 등 관내 5개 도서관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25일까지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

신청은 동구 평생학습과 홈페이지(http://www.donggu.go.kr/lll)에서 할 수 있고, 운영인원이 강좌별 10~20명인 관계로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오도서관(☎259-7051),용운도서관(☎259-7021),가양도서관(☎259-7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무리 봐도 대덕구 신대동이 정답"

대덕구,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 주민설명회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17일 대덕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의 신대동 유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날 설명회에 직접 나서 신축 야구장 입지로서 신대동이 최적지임을 설명하고, 이어 야구장 유치 관련 질의응답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청장은 이해하기 쉬운 시청각자료를 활용해 교통접근성, 내부경제성, 실현가능성 등 야구장 입지로서 신대동이 가진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기회라며, 100년 앞을 내다보는 꿈의 야구장 건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대덕구 야구연합회 간담회, 이글스팬클럽 간담회, 주요거점 플래시몹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야구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야구장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 담당자는 "시민들과의 다양한 소통행사를 통해 대덕구 신대동이 가진 장점과 입지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야구팬과 시민들의 지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및 향후 5년간 사업계획 등 종합 평가

서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및 향후 5년간 사업계획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지정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번 재지정 결정 2013년에 대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향후 5년간(2019년~2023년) 2단계 사업조성을 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로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선정한다.

그동안 구는 여성은 물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화 사업으로 범죄 취약 일대에, 여성친화행복마을 3개소 조성, 여성안심병원 6개소 협약, 안심지킴이집 운영, 여성친화 서포터즈 모니터링 등 여성의 대표성, 경제활동, 돌봄, 안전, 인프라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2단계 사업 조성에는 기존사업의 보완 · 확대와 더불어 맘 센터 등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새로이 조성하여, 돌봄 사회화, 여성 활동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민 · 관이 협력하여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선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 최초의 환승역

'용두역' 신설 본격 추진

대전시는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대전도시철도 최초의 환승역인 용두역 신설 공사도 본격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 오룡역과 용문역 사이 계룡육교 지하에 신설되며, 용두역 지상에 광역철도 역사가 신설되고 지상통로를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도시철도 1호선과 광역철도의 환승은 용두역이 유일하며 사업기간도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추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용두역은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총사업비에 포함 관리되나 384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위해 대전시는 2019년도 예산에 용두역 설계비 14억 원을 반영했다.

설계비가 투입되면 2020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 착공해 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와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로써 도시철도 1호선은 기존 22개에서 23개역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침체됐던 용두 · 오룡 인근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시 김종삼 첨단교통과장은 "광역철도와의 환승을 통해 도심내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계룡과 논산을 잇는 충청권과 연결되면서 광역교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계룡육교 지하에 도시철도 역사를 신설하기 때문에 고도의 공법이 요구되는 어려운 공사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와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학교밖지원센터 강채린 청소년 작가 데뷔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대전시꿈드림센터) 강채린(18) 청소년은 지난달 13일 시집 '망한 드라마'라는 제목의 시집을 펴냈고, 지난 15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강채린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난 4월 대전시꿈드림센터에 연계됐고, 학습지원 및 에버랜드 문화체험, 건강검진 신청, 대입설명회,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꿈job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전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동기 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강채린 청소년은 소극적인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직종에서 직장체험을 참여했고, 약 4개월 간 목동파리바게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직장체험을 하는 중에도, 작가가 되기 위해 틈틈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고, 그동안 남겼던 글을 모아 시집 '망한 드라마'를 출판했다.

강채린 작가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대전시꿈드림센터 이덕기센터장 및 직원들과 목동파리바게뜨 사장, 가족, 친구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채린 작가의 출판기념회는 이덕수 진로교사와 유창수 국어교사(대전은어송중학교)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작가 Q&A, 작가와 독자가 추천하는 시낭송, 사인회 등을 통해 독자와 작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강채린 작가는 "제가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고, 헤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대전시꿈드림센터에 제 책의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 책이 저의 인생에 성공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 인생의 성과인 이 책으로 낸 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져서 좋아요"라며 "금일 판매되는 시집의 수익금 전액을 대전시꿈드림센터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작가이기 전에 청소년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강채린 청소년은 2019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전시꿈드림센터에서 학습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중구, 2015년부터 44개 빈집철거 완료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2018년 12개동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빈집이 있던 공간은 내년 상반기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그 관리를 맡아, 주민의견을 수렴해 마을쉼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5년 유천동 빈집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이후 폐 · 공가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대전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작한 중구의 빈집 정비사업은 지난 4년간 44개 빈집을 철거해 25개의 마을텃밭, 14개의 공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등으로 바꾸며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중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기반 빈집실태조사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약 1,122호의 단독주택을 조사해 향후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주민의 거주 안전을 위해 시작했던 빈집정비에 협조해 주신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께 감사하고,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비 7억원 확보

서산시, 미취업 청년·청년 창업 희망자들에게 지역 정착 유도·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지원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서산시는 24개 기업과 35명의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비 확보로 미취업 청년, 청년 창업 희망자들에게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희망터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 ▲관광산업 청년 코디네이터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기업과 청년 매칭,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등 실질적 취⁃창업으로 이어 질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 할 예정이다.

조만호 자치행정국장은 "금년도 사업 추진과 마찬가지로 사전준비를 거쳐 지역 내 청년들이 취⁃창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취업지원팀(041-660-26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계룡시 2018년 모범납세자 98명 선정

성실하게 납세의무 이행한 모범납세자 · 금융우대 등 각종 혜택 제공

계룡시는 2018년 모범납세자 98명(개인 57명, 법인 4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되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는 선정된 모범납세자 98명에게 이달 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식약청 '의약외품 연구회'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연구회'를 17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최근 개정된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올해 실시한 의약외품 업체에 대한 감시 사례를 공유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며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감시 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의약외품 업체가 생산·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주)삼양사아산공장 취약계층 위한 밀가루 후원

(주)삼양사 아산공장(공장장 고영성)은 지난 14일, 아산시에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밀가루 총5,400kg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3kg밀가루 총1800봉으로 17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및 아산시 기초푸드뱅크에 지원되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고영성 공장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삼양사 아산공장은 2004년도부터 아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재가어르신들과 연 4~5회, 소풍 및 후원금 지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랑의 벽화그리기, 효잔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희애육원과 따뜻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월 1회 물놀이 및 호떡 만들기, 사랑의집에덴에는 연 1회 회사제품과 후원금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진히 추진하고 있어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창제지공업(주) 취약계층 후원물품 지원

신창제지공업(주)(회장 김석구)는 지난 14일, 아산시에 지역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총1,000만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750팩(30롤/1팩)과 백미 400kg으로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매년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신 김석구 회장께 감사드린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후원자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겠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제지공업(주)는 아산시 실옥동에 소재한 화장지원지 생산 전문업체로 2015년 아산시행복키움지원단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친환경 화장지와 라면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기업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새마을금고 주류구매전용 'MG주류구매카드'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17일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인 'MG주류구매카드'를 출시한다.

신규 출시되는 MG주류구매카드의 발급대상자는 소매업자이며,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주류구매 시 사용 가능 하다.

MG주류구매카드는 전용 가맹점에서만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창구 및 CD/ATM에서는 거래가 불가하다.

출시를 기념해 신규카드발급 회원을 대상으로『MG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2019년 새해선물 받자』이벤트도 진행된다.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카드결제 기준 선착순 10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3만원 상당)이 제공 되며 기간은 20일부터 19년1월30일까지 진행된다.

카드발급은 새마을금고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류구매카드를 출시했으며, 개인고객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aT, 품위확인용 참깨, 참기름으로 가공해 푸드뱅크에 기부 정부비축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역사회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품위검사용 샘플 참깨를 참기름으로 가공해 지난 11일 나주시 영산포에 위치한 푸드뱅크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aT 관계자들이 참기름을 전달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 내년 국비 20억원 추가확보 '쾌거'

명승 제63호 구드래 일원과 서나성 정비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확보

부여군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토지매입비 2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박정현 부여군수는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명승 제63호 구드래 일원과 서나성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지 1500년이 되는 해인 2038년까지 22년간 추진되는 중장기사업으로 백제왕도의 품격에 맞는 역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선정된 핵심유적(12개소)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사업비는 7,092억으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학술연구, 유적정비 및 복원, 관람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비사업 내용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함께 왕흥사지 복원, 관북리 특별보존지구 정비, 부소산성 주요유적 정비, 구간별 나성 복원·정비, 능산리 동·서고분군 조성·정비, 정림사지 정비, 화지산 및 군수리사지 발굴·정비, 방문자센터 조성 등 핵심유적의 조성 단계별 정비방안과 체계적인 관리가 추진된다.

박 군수는 내년 사업추진에 힘을 실고 중장기사업의 특성상 군민들이 사업의 속도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할 토지매입 예산확보에 집중했다. 그 결과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가능했다고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서나성과 관북리유적 토지매입에 대한 문화재청 예산확보로 향후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규제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나성 지역과 인접한 구드레 일원은 1984년 사적 및 명승 제6호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로 집단민원과 규제완화 방안 등이 제기되었으나 내년 예산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로 기대된다.

부여군에서는 앞으로도 시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정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성구기자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추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천군은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조례를 제정하고 5급 이상 관리자 교육,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9월과 10월 각각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위한 조성협의체와 현장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군민참여단을 발족하며 힘찬 시동을 걸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2019년부터 5년간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역량강화를 목표로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내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반 운영

청양군, '사업 조기착수·신속집행 기여·설계비 3억원 절감 효과'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1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조기발주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

군은 건설도시과장 김종섭을 총괄로 군·읍·면 팀장, 주무관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구성해 17일부터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인 2019년 2월 2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설계반에서는 2019년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합동 설계반 조별 현장조사 및 측량, 측량 시 건설기계 가격 및 기준환율, 노임단가 등을 통일시키고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된다.

합동설계 대상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촌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이 해당한다.

특히, 청양군 시설직 공무원들이 주민숙원 대상지, 위험 시설물(도로 및 배수로 등) 약 150억원의 사업대상지를 직접 현장조사, 측량, 설계 작업을 실시해 용역비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조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체설계를 통한 용역비 등 예산절감 및 설계기간을 단축해 2월 중 사업을 조기 발주할 계획에 있다"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농번기 이전 추진·완료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공주시 원도심 일반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초과 달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원도심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원도심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매년 500세대씩 총 2500세대 공급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866세대(공급관 연장 25.8km)를 공급해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원도심에서도 가장 낙후지역인 옥룡동 대추골 일원과 수원골 2길 등 5개구간(공급관 4.0km) 53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했다.

이는 대규모 신축아파트를 제외한 원도심 일반주택에 공급한 결과로 서민층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등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시는 내년에는 금성동 송선리길 일원 등 380세대(공급관연장 4.6km)를 공급할 예정으로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지역을 집중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12월말 기준 48.7%인 2만 6300세대를 공급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충남교육청, 수업료 업무담당 대상자 연수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완벽 대비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7일 보령 호텔 머드린에서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업무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내년도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수업료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내용은 내년도 무상교육 시행에 앞서 수업료 지원계획의 전반적인 안내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세입 업무절차, 수업료 수납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뿐만 아니라 수업료 지원방식 단순화에 따른 담당자 업무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박순옥 재무과장은 "이번 수업료 업무담당자 연수를 통해 내년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업무절차를 안내하고 담당자간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무상교육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청양군 남윤우 소득작물팀장, 농촌지도분야 최고 전문가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우수상'

32년간 '농촌기술현장지도'로 영농현장을 누비며 청양 농업발전을 이끌어 온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남윤우 소득작목팀장이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남윤우(53세) 소득작목팀장이 농업 신기술 연구·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2018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남윤우 팀장은 1998년 공직을 시작으로 32년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농가소득증대와 신기술보급에 앞장서 왔다.

왕대추, 마늘, 양파 등 신 소득작목을 발굴·단지화해 청정이미지에 맞는 농가 소득작목으로 확산시켰으며, 클로렐라 배양공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증대와 병해충 예방에 힘써왔다. 특히, 이상고온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채소 온도저감시설을 보급해 혹서기 과채류 재배에 효과를 거둬 지난달 청양군이 재해대응 신기술보급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보조사료 미생물 30MT 공급, ICT활용 축산환경개선 기술보급 등으로 악취저감 양축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크게 평가받았다.

남윤우 소득작물 팀장은 "이렇게 큰상을 받게 돼 보람되고 행복하다. 농촌지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전달하고, 농업인과 함께 실천하면서 조화와 융합의 과정으로 성과가 더욱 향상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기술보급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농업인과 행복한 청양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영유아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건양대 아동보육학과, 소책자와 안내 자료 배부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 아동보육학과(학과장 황성원)는 지난 14일 대학 인근에서 논산시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아동권리와 복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아동학대 예방홍보물을 기획하고 구성해 만든 소책자와 안내 자료를 부모들에게 직접 배부했다.

소책자에는 아동에게 보장해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안내하고 아동학대의 유형을 소개하며 가정 내 아동학대의 사례들을 다뤘다.

아동보육학과 학생들은 또한 '안돼요! 아동학대'라는 타이틀로 사이버 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3학년 예비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네(Freinet) 교육 기반 수업과 매주 아동권리 존중 방안을 실천하고 작성한 자유글쓰기를 통해 얻어진 성과다. 김태선기자

아산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특별상 수상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행정안전부 등 공동 주관으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서울신문사 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한 해 동안 획기적인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지방재정분야 우수사례 256건을 제출받아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44건을 선정했다.

아산시는 세출절감 분야에서 중앙도서관 신축이 전국도서관 최초 제로에너지 및 패시브 건축물 인증·건립으로 철저한 공사내역 분석과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추진 및 관급자재 구매방식 변경 등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을 절감(약 44억 1천 7백만원)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중앙도서관은 2018년 제21회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한바 있고 2018 제3회 아시아(한·중·일)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 견학지로 각광받는 등 전국 공공건축물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에너지절감 정책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신주봉 공공시설과장은 "2012년도 부터 건축직 공무원들이 창의력과 열정을 가지고 친환경 공공건축을 건립하여 녹색건축도시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방안까지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공사품질 향상과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2금강교 건립 현상변경 재심의 부결

세계유산 공산성 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공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2금강교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한 '공산성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가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11월 14일 실시된 1차 심의에서 요구한 대안별(4차선, 2차선, 공주대교 확장 등) 비교검토 보완요청에 따라 3개안에 대한 공산성의 내·외부 조망성 등 경관적 측면, 교통량 분석, 환경영향 등 제2금강교 건립타당성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공산성에 미칠 영향의 최소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계획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연계를 내세워 4차선 교량건립을 최적안으로 보고했지만 세계유산 공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안 상정 시 문화유산 영향평가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해, 제2금강교 건립에 따른 세계유산 공산성의 경관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4차선 교량 건립을 재상정하지 못하게 된 공주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긴급히 지역의 해당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에게 재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지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2금강교 건립사업은 노후로 인해 조기 폐쇄가 우려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를 보호하고,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 국회예산 확보 후 3차례에 걸친 사적분과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자체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의견수렴 및 토론과정을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마련하고, 원안가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종합터미널, 대교통 경영 및 서비스 부문 전국 1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상식

보령시는 지난 14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상식에서 보령종합터미널이 2018년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전세버스 운영자와 우수기관을 선정해 격려하고, 조사를 통해 축적된 대중교통 수단별 운행관리, 안전 등의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서 충남도내 17개 여객자동차 터미널 중 유일하게 종합점수 90.08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의 우수한 터미널과 비교해도 최고의 경영 운영과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펼쳐온 점이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보령종합터미널은 경영관리 영역에서 운영인력 비율과 현업인력 비율이 만점을 받는 등 경영평가 20점 만점에 15.83점을 받았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승강장 및 여객통로를 승·하차용 구분 ▲터미널 내 진·출입 차량을 유도하는 운행관리원의 안정적 확보 ▲차고지 면적 적정 확보로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 등 사계절 관광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이 대기시간 지루하지 않도록 고객용 TV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지역별 운행 시간 및 요금표 등을 매표소 전면에 LED로 설치해 시인성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신성식 보령종합터미널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에서 후원하는 "따뜻한 나눔"

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 대덕구노인복지관에 후원금 지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은 17일 오전 10시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연탄지원사업 [따뜻한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후원 행사는 동절기 대비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에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3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저소득 독거노인 8가정에 연탄 450장씩 지원했다.

김형식 관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후원행사를 통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미세먼지 대응 지방연대 선언식, 19일 아산시에서 개최

오는 19일 오후 3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개 자치단체, 환경부, 충청남도, 기업체 등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환경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천안·아산·서산·당진시 미세먼지대응 지방연대 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영 천안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의 연대선언과 식전 공연, 오프닝 동영상, 포퍼먼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선언식 행사가 끝나면 아산시청 앞 광장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보급된 전기시내버스 시승행사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식은 올해 9월 4일 오세현 아산시장 민선7기 핵심공약 사항 브리핑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근 천안·당진시에 공동대응 제안을 시작으로 아산시청, 천안시청, 당진시청 등에서 3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천안·아산·서산·당진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연대 선언식」개최 등을 합의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겨울방학 복합커뮤니티 센터 교육활동 프로그램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019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7주 동안 세종시내 5개 복합커뮤니티센터(새롬동, 보람동, 고운동 남측, 아름동, 대평동)에서 마을교사 학습공동체가 자체 개발한 마을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복합커뮤니티교육활동'은 겨울방학 동안 세종시의 우수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안전한 마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2월, 3개(보람동, 아름동,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처음 시행한 '복합커뮤니티교육활동' 프로그램은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 마을교사의 반응이 매우 좋아 내년에는 5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충남병무청, 병무홍보주간 찾아가는 병무행정설명회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17일 병무홍보주간을 맞아 대신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아산시 '2018 우수 지자체' 선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에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243개 지자체 중 '조례 정비과제'를 모두 정비한(정비율 100%)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2014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과제 499건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법제처의 자율정비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15년 35건, '16년 30건, '17년 105건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도 45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배재대 유학생 박사과정 왕립군 씨

국내 최장수 문학단체 '호서문학' 신인상

내년 2월 배재대 대학원 한국어문학 박사과정을 마치는 왕립군(王立群·중국·32)씨는 수줍은 듯 답했다. 중국 산시성 출신인 왕 씨는 2018년 '호서문학' 여름호에 자작시 5편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잠' '환자' 2편이 신인상을 수상해 등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당시 심사위원들은 작가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게다가 그가 중국 위남사범대 교수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문학계를 감탄하게 했다. 김정환기자

한국마사회 '대전문화공감센터' 지원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감성캠핑

정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5일~16일 1박 2일 간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감성캠핑'을 실시했다. 가족캠핑에는 7가정 22명의 가족들과 자원봉사자, 초대손님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난 1년 간 '토닥토닥 우리가족'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고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돈독한 가족관계를 위해 서로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감성캠핑은 활동결과물 전시, 파티요리교실과 종강파티, 가족캠핑요리교실 등을 글램핑장이라는 색다른 장소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가족캠핑은 '한국마사회 대전문화공감센터'의 나눔기부금 지원사업으로 보다 풍성하게 이뤄졌다. 송병배기자

공주도서관, 아듀 2018! 연말특강

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은 지난 15일 학생 및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아듀 2018! 연말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성인대상으로 우리 집 크리스마스를 책임질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초등학생 대상으로 도서관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LED 스트링아트 만들기를 운영하여 도서관 로비에 전시하여 집과 도서관에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주말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책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체험과 참여 중심의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두가 즐거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한전 설비진단처, 보훈가족에 보훈온열상자 지원 한전 설비진단처(처장 박상호)는 17일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을 방문, 추운 겨울 보훈가족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보훈온열상자(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아산시보건소, 가족과 함께하는 중독회원 송년모임 아산시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센터에 등록된 알코올중독회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송년 모임을 열었다. 술로 인해 생긴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과 문제를해소하고 화합을다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대전현충원, 12월의 현충인물 순직경찰 '배근성 경위' 유가족에 선정패 증정 국립대전현충원(원장권율정)은 지난15일 12월의 현충인물로 선정된 순직경찰 '배근성경위' 유가족을 초청, 현충인물선정패를 증정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라돈 방출 걱정, 간이측정기로 해결해요"

대전시, 내년부터 라돈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시행

대전시가 라돈으로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적절한 대처를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전시는 최근 일부 메모리폼 베개와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 라돈 수치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시에서 구입한 70대를 포함한 104대의 라돈 간이측정기를 시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17일 밝혔다.

직접 라돈 측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대여기관*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접수순에 따라 지정받은 날에 측정기를 수령해서 1박2일간 사용하면 된다.

가정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4pCi) 이내인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30분 이상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측정한다.

재측정결과도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라돈방출 의심제품으로 신고*해서 정밀측정 등의 조치를받아야 한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간이측정기 대여는 1군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품에서 라돈방출이 의심되면 반드시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측정기 대여서비스와 함께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라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선태기자

세종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안전 민관합동점검

19~20일 세종시 전통시장 4곳 점검 안전강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동절기를 맞아 19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민간전문가, 상인연합회, 소방서와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4곳을 화재 안전강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가스시설물 관리실태 ▲소방피난설비 및 수신기 작동상태 ▲전기, 수도시설 관리실태 등을 확인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험요인은 적발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상인연합회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공주소방서, 재난약자 인명피해 제로화 앞장서

요양원 요양병원 등 41개소 피난약자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일반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와상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과 야간 또는 휴일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감소되어 신속한 대피유도가 어려운 시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중점 사항은 ▲각 층 및 병실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는 방연마스크 및 구소손수건 비치 ▲거동불가, 거동불편, 거동가능환자 각 피난능력별 바닥 피난안내선 설치 및 병상 태그 부착 ▲야간 또는 휴일 자위소방대 책임자 핫라인 구축 등을 추진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재난약자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신속한 피난 및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자 방범·소방교육 실시

범죄 및 화재사고 예방 따른 대응 능력과 역량강화 위해 마련

아산시는 지난 13일, 배방읍사무소 다목적홀에서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안전책임자에게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범·소방안전교육을 통한 각종 범죄 및 화재사고 예방에 따른 대응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동주택주택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철 주택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 사고가 빈번하고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전열기구 및 도시가스 등 각종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화재사고가 우려 된다"며,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주거용 컨테이너 등 합동안전 컨설팅

보령소방서, 관내 주거용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29가구 대상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화재가 급증하는겨울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약 12일간 보령시 관내 주거용 컨테이너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와 합동으로 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와 함께하는 이번 합동안전컨설팅은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컨테이너,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예방 컨설팅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문화 분위기를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가구별 소방·전기 점검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제거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설치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 교육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교육 매뉴얼 배부 등 실질적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청양소방서, 주택 화재 완진…인명피해는 없어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47분경 장평면 미당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를 완전 진화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미당전담대 김성륭 총무부장 외 1명은 순찰근무 중 인근 주택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접주택으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즉시 초동조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화재는 이어 도착한 소방대원 21명, 의용소방대원 40명, 차량 12대를 동원해 38분 만에 완전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15,114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관계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청양=정상범기자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힘써

아산소방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위해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라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대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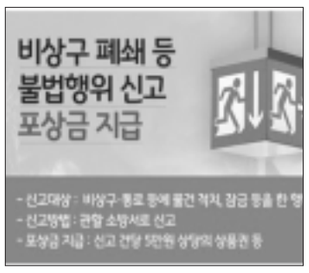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재룡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선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서산소방서, 각종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 위해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비상구 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사무실 임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위치

특장점
1. 편리한 교통(지하철역 도보3분 거리)
2.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임대료
3. 정부 공공기관건물로 보증금 전액보장
4. 쾌적한 시설 및 안전한 주변 환경
5. 은행, 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용이

주소
대전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둔산동 942번지)

면적
1층 234.55㎡ (약 70.95평)
* 전용면적은 116.10㎡ (약 35.12평)

문의처
042-389-5002
042-389-5009

전경

2018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보고회

대전시교육청, 직업계고 국외취업에 날개를 달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18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직업계고! 세계를 향한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018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단 40명의 학생을 비롯한 참가 희망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리 분야로 실습에 참여한 유성생명과학고 이수진 학생 등 6명의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학습 체험수기 및 국외 취업 계획을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참석한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대전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요리, 자동차, 건축, 토탈뷰티, 용접, 서비스 등 6개 분야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호주에서 영어교육 5주, 직무교육 4주, 현장실습 3주 전 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무사히 귀국했으며,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호주에 취업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2012년부터 대전시청과 연계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운영하고있으며, 올해 7년째로 313명이 참여 했다.

2017년 교육부 공모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연계형 최우수 모델로 인정받고 있어, 직업계고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글로벌 현장학습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태안두레, 장학금 난방비 1,500만원 지원

관내 저소득층 학생 난방비 및 아동 보호시설에 지원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소속 지방공무원 봉사모임 『태안두레』는 회원들이 모은 회비로 관내 저소득층 학생 난방비 및 아동 보호시설에 장학금 15,000,000원을 지원 했다.

태안두레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가 증가하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되어 난방비 지원과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다.

태안두레 김나겸 행정과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난방비와 장학금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회원들과 뜻깊은 일에 봉사와 후원을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두레는 관내 지방공무원 1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로 독거노인 가정 방문 봉사활동,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 및 난방비 지원 등 활동을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부여교육지원청, 권익위 청렴도평가 '충남1위'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여교육지원청은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청 청렴도평가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지난 2016년 평가결과보다 0.23점이 상승한 9.55점을 받아 충남1위를 차지했다.

부여교육지원청은 또한 2018년도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렴수준측정(평가)에서 관내학교 42교 및 부여도서관이 1등급으로 청렴학교(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종설 교육장은 "이번 결과는 부여 관내 전 교육가족이 평소 청렴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렴 조직문화 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성구기자

서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 성료

서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에서는 12월 13일~15일 영재교육대상학생 66명(초등33명, 중등33명)이 참여한 가운데 2박3일의 일정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제주도 일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그동안 수학·과학교육 중심의 영재수업을 기초로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능력, 융합적 사고력 등을 배양하고 창의융합인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의 제주도의 형성에 관한 특강, 테마별 프로젝트 학습으로 팀별로 진행된 신비의 도로, 소인국테마파크, 제주별빛누리공원, 성산일출봉, 메이즈랜드, 만장굴, 여미지식물원, 주상절리대, 용머리해안 등 다양한 학습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지도선생님들과 함께 팀별로 프로젝트 학습활동을 하며, 수학·과학적 원리를 찾아가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다. 둘째날 저녁 프로그램에서는 체험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토의·토론과 발표를 통해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성찰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교육청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 가이드 북' 배포

12월부터 2월까지, 새학년 학교교육을 미리 준비합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019학년도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가이드 북'을 단위학교 현장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은 2018년부터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정책으로, 새학년의 시작인 3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내실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학교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북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12~1월 ▲계획하는 2월 ▲실행하는 3월 등 각 단계별 구체적 추진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가이드 북'을 참고하여 ▲12월 학교자체평가 실시 및 차년도 교육계획 기본방향 설정 ▲1월 학사일정 마무리 및 교육계획 기본안 마련 ▲2월 새학년 교육활동 준비 공동워크숍 및 신학기 집중 준비기간 운영으로 2019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가이드 북'에 포함된 주요과제별 추진 내용, 인사 및 학사분야 Q&A, 2018학년도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12월부터 2월까지, 3달 동안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며 만들어가는 새학년 준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모든 학교의 교사가 새학년의 시작인 3월부터 수업과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수업에 몰입하는 3월' 가이드 북 제작·배포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또한, 3월, 교육청 주관 공문과 연수·출장을 지제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다문화가정 초등 예비 학부모,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개최

아산교육지원청 '두근두근 첫 등교!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은 17일과 18일 신광초등학교와 둔포초등학교에서 2019 다문화가정 초등예비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입학 적응을 돕기 위해 '두근두근 첫 등교!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권역별 찾아가는 입학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저녁 시간에 개최해 맞벌이 다문화 가정의 참여를 높였다.

또 아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산시청,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홍보와 참여를 높였다.

알고 준비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 교육체제,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배부하고 안내하였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설명회 강사로 참여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입학설명회를 통해 중도 입국 자녀 및 외국인 자녀의 입학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입학 전 학교 방문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아산교육지원청은 모두에게 희망 주는 행복한 아산교육을 위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자녀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 실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지난 14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공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가졌다.

학생, 학부모, 교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됐으며, 초·중학교반 모두 교육활동 102시간, 사사과정 16시간을 이수, 초수학과학반 37명, 초정보반 26명, 중수학과학반 40명 총 103명이 수료했다.

공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2007년 3월 16일 개원, 2018학년도까지 총 1,144명의 수료 학생을 배출했다.

충남의 다른 시·군에 앞서 정보영재반을 개설, 선도적인 영재교육을 펼쳤으며, 초·중 강사 40명으로 구성, 내실 있는 교육활동으로 2018학년도 영재교육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8학년도 영재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2019년도에도 영재교육과정을 이어나가길 희망하며 지난 12월 1일 영재성 검사를 치렀으며,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영재교육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학생 사고를 확산시키고 탐구능력 배양은 물론, 특히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2019학년도 영재교육원 운영에 있어, 면 소재 소규모 학교에서 다니게 되는 소수 학생들의 어색함을 덜어주고자 3월 영재교육원 입학식과 더불어 사사교육과정을 시작, 영재교육원 교육활동 내실과 학생들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도와주고자 계획하고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충남교육청, 2019학년도 정시모집 및 진로진학 상담박람회 개최

22일 선문대학교(아산) 체육관에서 실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22일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체육관에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및 진로진학 상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박람회는 30개 대학(수도권 8개 대학, 충청권 32개 대학)을 초청해 ▲대학관 ▲진로진학상담관 ▲특강관 등 총 3개 주제관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9:30~15:30이며 현장접수(9:00부터 선착순)를 통해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들은 2019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전략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2020, 2021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에 대한 상담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주제관별 내용은 대학관은 30개 대학교 입학사정관 70명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전략을 상담해준다.

진로진학상담관은 충남도교육청진학교육지원단 전문상담교사 30명이 학생과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및 2020, 2021학년도 수시모집을 위한 맞춤형 진학상담'을 실시한다. 특강관은 수도권 6개 대학과 충청권 6개 대학 입학설명회가 10:00~12:00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http://career.edu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김영희 원장은 "우리교육청 진로진학 상담박람회는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진로진학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사랑 나눔 연탄 배달 봉사활동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직원 50여명은 17일 금산읍 소재의 조손가정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은 관내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연탄배달이 힘든 곳에 거주하는 가정을 선정하여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600여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봉중, 간송장학회에서 장학금과 도서 기증 받아 음봉중학교(교장권오주)에서는 해마다 간송 남영희 선생이 1976년에 설립한 간송장학회(설립당시 음봉장학회)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대전복지관 장난감도서관서 성탄행사 개최 초록우산어린이재단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미)은 지난15일 장난감도서관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MerryChristmas 우리가 그린(Green) 크리스마스! 성탄행사를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한국생활 동영상 전국 공모전 대상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1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English Program in Korea) 한국생활 동영상 공모전」에서 여울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브론윈 프레토리우스(Bronwyn Pretorius)가 국립국제교육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동 정●●●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시상식

양승조 충남도지사= 18일 오후 6시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제27회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시상식에 참석.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1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

균형발전사업 1조 3500억원 추가 투입

충남도, 2단계(2021년부터 2030년)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속추진

충남도는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1조 3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균형발전 사업으로, 당초 계획(2008년~2020)보다 10년이 추가로 연장된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낙후도가 높은 서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2년간(2008~2020) 1조 809억원을 투입, 197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1개 시군에 연간 약 1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저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는 균형발전 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및 복지타운 건립 등 주민 복지 공간 확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도심 재생, 공원·광장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사업을 추가로 연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간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사업부터는 당초 100억원가량 투입된 예산을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10년간 150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도는 2단계 추진사업 선정 요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가능 사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증가 시책사업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낙후도 평가는 인구밀도와 사업체수, 상하수도보급률 등 총 17개 지표로 나눠 평가할 계획이다. 당초 인구증가율과 노령화지수 등 6개 지표를 통해 평가했던 방식보다 11개 지표가 추가됐다.

도는 내년 지원 대상 시군 선정 및 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균형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부터 해당 시장·군수와 협력해 시군 및 도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컨설팅, 자문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성구 기자

쓰레기 재활용률 높이기 '온 힘'

세종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가동·시민 교육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다가오는 새해부터 모든 쓰레기 처리시설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재활용에 팔 걷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소각·매립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자원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은 1kg당 10원 ▲매립 1kg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사업장 및 자치단체에 부과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운동에 처리용량 1일 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해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고 종류별로 매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1곳 설치 운영 ▲폐우유팩-화장지 교환사업 실시·확대 ▲재활용동네마당 17곳 설치 운영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빈용기 보증금제도 시행 ▲BRT승강장 재활용품 수거통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경진대회 개최 ▲청결리더 육성 ▲학교·단체 등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등을 기존 시책에서 확대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국방부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와 국방부가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이하 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국방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도모하고, 각종 행사 프로그램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문화엑스포에서의 군 관련 프로그램의 참가 병력 지원과 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상과 위상을 알리는 주요 무기와 장비 전시에 협력한다.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행사장 안전 관리,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책임지며, 군문화엑스포 행사에 지원된 군 병력, 무기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

2020년 9월 개최되는 군문화엑스포의 주제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표방하고자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로 결정했다.

주행사장인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대에는 평화관과 미래관, 세계군문화체험관 등 5개의 주제관이 운영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엑스포를 넘어 군 문화의 이해와 가치를 발견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군문화엑스포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펼치는 평화의 한마당으로,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차질 없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군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엑스포의 개최 목적과 주제에 맞게 시기별·단계별 차별화된 추진 전략으로 해외 초청 및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8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7일 동안 충남 계룡시 계룡대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성구 기자

또래건강리더, 건강생활습관 변화 이끌어

세종시보건소 3~12월 운영… 참가 아동 93% 프로그램 만족

세종시보건소(소장 이강산)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또래건강리더' 프로그램이 지난 3월부터 시작돼 12월 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또래건강리더'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월 1회 보건소 전문인력과 외부강사를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성장기 아동에게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갖게 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지식을 전파하는 건강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지역아동센터 3개소(부강, 종촌, 행복) 아동 77명 대상 또래건강리더 발대식을 시작으로 운동, 흡연, 영양, 구강, 성, 정신건강교육을 진행하였고, 11월에는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그리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12월 5일, 11일, 18일 각 지역아동센터별 포스터그리기대회 시상식 및 프로그램 종강식을 갖고, 올해 또래건강리더 프로그램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래건강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93%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53%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주 3회 30분 이상 운동 실천율은 10.2%(47.4%->57.6%),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은 6.5%(93.5%->100%) 증가하였고, 아침식사 결식율은 12.8% 감소(43.5%->30.7%)하여 전반적으로 대상 아동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김태선 기자

구조구급 역량 강화·재난대응 능력 제고 추진

세종소방본부,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내년도 집행계획 등 논의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가 17일 시청에서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119구조 구급 집행계획의 정책방향을 협의·조정했다.

이날 회의는 채수종 소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종보건소,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단국대의과대학병원 등 구조·구급분야 대학교수와 재난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 위원들은 최근 구조·구급 업무영역 증가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강화해 특수재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들은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 외에도 U-119 안심콜 서비스 활성화, 중증환자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유무, 개인병력 등 미리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시 빠른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원들은 서비스 가입률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 안전망 확보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 파랑새·전월산유아숲체험원 정기형 참가기관 20일까지 모집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 이하 진흥원)은 세종시 파랑새유아숲체험원(원수산)과 전월산유아숲체험원에서 2019년도 유아숲체험 정기 프로그램(2019년 3월~2020년 2월)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세종시 관내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유아 대상학원이며, 참가 유아의 연령 제한은 없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을 참고하거나 파랑새유아숲체험원(010-2546-4191)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파랑새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는 진흥원은 내년부터 전월산·괴화산유아숲체험원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윤영균 원장은 "많은 유아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유아들의 인성과 자연친화적 태도 형성을 위하여 연령별,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세종시 상수관로 81.5㎞ 매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올해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면지역에 135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81.5km를 매설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수 오염 및 수량 고갈 등으로 생활용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1,700여 가구 4,428명의 주민들이 환경부의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됐다.

시는 올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면지역 급수보급률이 전년보다 10.4% 높은 올년 말 기준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식수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를 해소하는 생활SOC사업으로 내년에는 158억원을 투입하고, 24년까지 모든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남자 어르신 행복충전 힐링의 날 행사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4일 어르신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자 어르신 행복충전 힐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예산군보건소에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자 어르신 건강요리교실을 수료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요리교실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황선봉 군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 요리실습 평가회, 난타공연, 마음 치유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예산=양성업기자

충남도, 16기 도정모니터 위촉 및 연찬회

운영방향 설명·토론 등 진행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 도정모니터 위촉식 및 연찬회'를 개최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새롭게 위촉된 도정모니터,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도정모니터 운영 방향 설명, 특강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도운 한국안드라고지연구소 대표는 이날 '도정모니터 제보(글쓰기) 방법'을 주제로 강연했고, 효율적인 제보방법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도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주민 불편사항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단의 노력은 더 좋은 행복 충남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년 동안 도정의 든든한 파트너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정모니터는 각 모니터 요원들이 생활 속에서 도정과 관련해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도에 제보하면, 도가 이를 검토해 도정에 반영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도민 참여 제도다.

이번 16기에는 15개 시·군 90명의 모니터 요원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도는 올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요원으로 정예화 △모니터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 활성화 지원 △모니터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을 도정모니터 운영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김성구 기자

예산군 경제작물분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새소득 작목·기후변화대응 등 정보제공 통한 신기술 보급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7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과 시범사업장에서 2018년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회는 관내 시범사업농가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추진된 채소·화훼·특작분야 기술보급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효익 경제작물팀장과 안순만 담당자로부터 채소·화훼·특작 등 2018년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시범사업농가들(남상철(덕산), 전유성(신암), 김영주(오가))의 우수 추진 사례 발표를 듣고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가면 윤병완 농가의 ICT활용 친환경온실관리 환경개선시범 사업장 △고덕면 이재준 농가의 인삼시설재배 기술보급시범 사업장 △고덕면 김동유 농가의 신소득작목 「양대파」 저장성 향상 시범사업장 현장견학으로 신소득 작목에 대해 배우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 현장을 견학했다.

특히 인삼 시설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를 신축해 2년생 건전육묘 생산과 적정 차광막 사용으로 수분관리와 고온 피해 발생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신소득작목 양대파 저장성을 유지해 출하를 조절하고 균일한 양대파 안전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과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소비 트랜드에 맞는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과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 육성을 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경제작물분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외 12개 사업이 추진됐으며 2019년도에는 스마트팜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외 16개 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예산=양성업기자

동정

도교육감 간담회

김홍장 당진시장=18일 오후 2시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

가세로 태안군수=18일 오후 2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승언2호지 수변경관 정비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최종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18일 오후 1시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2018 성인문해교육 학습발표회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양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

이심훈 아산교육장=18일 10:00 제30회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에 참석.

아산시 올해 신규임용공무원 교육

아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아산시청에서 2018년도 신규임용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함양과 업무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임용공무원 아산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8년도 하반기 임용된 신규 공직자들이 알아야할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배공무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직에서 경험한 실무 위주 강의로 진행했다.

아산시정 현재와 미래 특강을 시작으로 청렴, 성폭력 예방, 민원응대, 변화의 시대 공무원의 역할, 아산시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선배공무원과 함께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하여 예산 · 회계 · 새올행정시스템 · 온나라 등 전산교육과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을 실시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체험 교육으로는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알아야 할 사업장과 주요명소인 아산환경과학공원, 코미디홀을 견학하고 교육을 마무리했다.

김성호 총무과장은 "이번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을 통해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내년에도 체계적으로 확대 ·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042)538-3030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47억 원 지급

당진시, 농업환경 개선 자율이행 앞장선 농가 지원

당진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에 걸쳐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한 지원금 4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충하는 것에서 나아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업 · 농촌의 유지와 농촌다움 증진을 구현코자 충남도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지역에 거주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해서 쌀 · 밭 · 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하고 연 초에 각 마을과 읍 · 면 · 동 간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한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들이 실천한 자율이행 조건으로는 ▲질소비료 적정 시비(9㎏/10a)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3년 1주기) ▲논둑 고독성 제초제 미사용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게는 가구당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36만 8,000원이 정액 지급됐다.

다만 시는 지급대상자를 산정할 때 농가 단위로 대상자를 판단해 농가 주택 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이 직불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2인 이상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1명에게만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당진에서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총 1만 2,820명이며, 이에 따른 지급총액은 총 47억 1800만 원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자율참여가 중요한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 =최근수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안흥항 새롭게 변신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 안흥나래교 새로운 관광자원

태안 안흥항이 새로운 관광자원개발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 14일 태안 대섬 및 마도를 포함한 인천, 경기, 충청 해역의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보유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안흥항 인근 신진도에 개관했다.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바다에서 찾은 고려의 보물들'이라는 주제로 고려 보물 3점 등 총 200여 점의 고려시대 유물을 선보이며 내년 4월까지 기획전시회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준공된 태안의 새로운 명소인 '안흥나래교'를 통해 탁트인 서해바다와 신진도, 안흥항의 경관을 감상하며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할 수 있어 안흥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군은 올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안흥내항 주변정비 사업으로 1만 3170㎡ 면적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 총 222대의 차량 주차공간을 조성해 안흥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군은 앞으로 신진도 케이블카 사업과 안흥성 국가지정문화제 승격 추진, 항구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해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안흥성, 안흥나래교, 유람선, 골프장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러넣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침체된 안흥내항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신진도와 안흥항이 태안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태안군 관내 경로당 480여 명 대상 겨울철 안전교육 실시

태안군이 겨울철을 맞아 어르신 생활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18개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48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 화재, 가정 안전관리 등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지난해 시범운영한 '행복 경로당 방문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전문 강사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삽화, 글씨 크기 조정 등 맞춤형 안전교육 책자를 제작해 교육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농 · 어촌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신호 무시 보행 · 습관적 무단횡단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가스 · 화상 · 충돌 등 각종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법을 교육한다.

군은 교육 참여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한기를 활용,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수칙 실행 생활화와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교육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더 안전한 태안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도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 방풍막 조성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겨울철을 맞아 청양군청 앞 도로변 중앙분리대 600m 거리의 가로수 보호를 위한 방풍막을 설치했다.

가로수 방풍막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3년째 시행 중으로 올해는 방풍막에 청양군의 마크 및 슬로건 핸드페인팅으로 더욱 특색 있게 조성해 청양군의 홍보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중앙분리대 화단은 관목 위주의 식재로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에 특히 취약해 방풍막 조성은 겨울철 찬바람 및 폭설과 결빙에 따른 염화칼슘 등의 각종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가로화단에 식재된 수목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한편 군청 앞 중앙분리대에는 무궁화, 황금사철, 홍매자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사시사철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군에서는 지속해서 수목 관리를 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탕정면 행복키움 사업 결산 성과보고회 실시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송현순)은 지난 14일, 2018년 탕정면 '행복키움추진 사업 결산 성과보고회'를 실시하고 제4기 행복키움추진단 단장을 선출하여 현재 단장(송현 순)이 재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의 후원과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복키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또한 전정숙 부단장의 추진경과 보고와 한해 동안 활동한 영상 상영 등 그동안 행복키움추진단 단원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

2018년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은 15개 신규업체 협약식을 체결하고 사각지대 및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연간누계 10,630여 가구를 순수 민간자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어 탕정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마을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사업 연500만원, 매월 취약가구 37가구 후원물품지원과 가정방문 모니터링, 분기별 복지학당 개강과 연 1회 워크숍으로 단원들의 역량강화를 하였으며, 집수리 사업, 사랑의 열무김치 행사, '어르신 섬김데이' 및 매년 어르신500여명을 모시고 『어르신 효잔치 한마당』을 개최하여 문화공연, 체험부스, 식사지원 등 "따뜻하고 행복한 탕정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송현순 단장은 "한 해 동안 땀방울과 사랑으로 이루어낸 결실에 대하여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에도 단원들의 새로운 열정과 헌신을 기대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흥섭 면장은 "그동안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복키움추진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나눔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훈훈한 사랑이 넘치는 탕정면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개소

12억여 원 투입해 시설 확대 · 치매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당진시 치매안심센터가 2019년 1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이달 17일 김홍장 시장과 관계 공무원,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당진시 보건소가 '치매상담센터' 형태로 임시 운영해 왔으며, 시 보건소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12억 8800여만 원을 투입해 보건소 본소 건물에 600㎡ 규모로 리모델링과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검진실, 상담실, 가족쉼터실, 주간보호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한 전문 인력도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 등 기존 3명에서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 3명 등 9명으로 대폭 증원돼 당진지역의 치매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은 준비과정을 거쳐 조직개편과 인원 확충 이후 2019년 1월 중 가능할 전망으로, 본격 운영되는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교육을 비롯해 치매 조기선별검사와 취약계층에 대한 1: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그동안 치매안심센터 임시 운영을 통해 총 125회, 6000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1만 8000명에 대해 치매선별검사를 진행해 400여 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운곡면 가을철 산불 발생 제로화 달성

청양군 운곡면(면장 조용근)이 지난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운곡면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했다.

면은 산불예방 비상근무반을 운영하며 산불 취약지를 순찰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더불어 산불 진화대원과 감시원은 인화물질 사전제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산불조심 홍보물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 발생 제로화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조 면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온양6동 행복키움 성과보고회 열려

아산시 온양6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이범영)은 지난 14일, 행복키움추진단원 및 협약기관, 후원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8년 행복키움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온양6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 재능기부자, 기관단체들과 함께 온양6동 행복키움추진단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범영 단장은 "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겸 동장은 "내년에도 더 행복한 온양6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계룡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

계룡시에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태권도, 검도, 헬스 등 수강료를 월 8만원 이내로 지원함으로써 건전한여가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추진돼 온 사업이다.

시는 올해 스포츠이용권이 사용 가능한 태권도 6, 검도 2, 헬스 등 12개소를 확보하고 1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유·청소년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범죄피해가구 등 해당 가구 내 만 5세 ~ 18세의 유·청소년(출생기준일 2001.01.01.~ 2014.12.31)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및 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42-840-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

논산시, 와이앤비푸드·보람씨앤에치 우수기업 인증패 받아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충청남도가 공모한 '2018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관내 기업 2곳이 선정돼 지난 13일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도내에서 2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근로자 증가율이 10%이상(전년 대비 5명 이상)인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논산시는 경영건전성·고용증대·고용환경 등의 평가를 통해 2개 기업을 추천했으며, 도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와이앤비푸드, 보람씨앤에치는 2천만원의 근로환경개선금과 인증패를 받게되며,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현희 와이앤비푸드 대표는 "고용창출은 기업 본연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기업하기 좋은 논산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청년살롱' 호응 속 성료

서천군, 청년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 참여열기 후끈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한 '함께하는 청년살롱' 청년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지난 15일 마무리 됐다.

함께하는 청년살롱은 워라벨(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20~30대 미혼청년층 트렌드에 맞춰 지역 내 청년들 간 교류를 높이고 퇴근 후 함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주말 문화 활동으로 기획됐다.

모집 당시 지역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청년살롱은 당초 25명 이내였던 모집인원에 비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몰려 4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제 맥주, 수제 초콜릿, 반찬 만들기, 드립커피 내리기, DIY 원목트레이(나무쟁반) 만들기 등 5가지 체험프로그램과 주말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친분을 쌓으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질 높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여나갔다.

또, 대다수 청년들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한 '나의 금융관리 방법 바로알기' 재무교육 참여로 안정적인 경제활동, 자산설계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 이 모 씨는"지역에 청년을 위한 활동 지원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함께하는 청년살롱을 통해 평소 해보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직장의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서천을 떠나는 청년들의 탈 서천 가속화를 막음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선샤인랜드 부는 관광객 열풍 '후끈'

선샤인 앤 러브·선샤인트레인 한류이벤트 열려… 미스터션샤인 감동 '만끽'

충남 논산에 선샤인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건양대 콘서트홀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주제로 한 한류 이벤트 '선샤인 앤 러브(Sunshine&Love) 토크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 800여명을 비롯해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한 배우 김민정과 드라마 OST를 부른 가수 황치열이 함께 해 드라마의 뜨거운 인기를 재확인하며 다시 한번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드라마 촬영 에피소드와 노래, EDM쇼와 관객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공연장은 열기로 가득 찼으며, 미스터 션샤인의 매력에 푹 빠진 관광객들은 촬영지 논산 선샤인랜드에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중 200여명은 용산역에서 미스터 션샤인 특별열차 '선샤인 트레인'을 타고 논산을 찾았다. 주요 촬영지였던 선샤인 스튜디오에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여운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는 미스터션샤인 촬영지 방한 상품 출시를 위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 외국 주요 여행사 관계자 12명도 초청해 지방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됐다.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일원에 조성된 선샤인랜드는 '논산' 하면 떠오르는 훈련소 브랜드에 한류문화를 접목한 최신 밀리터리 체험관을 비롯해 낭만스튜디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선샤인스튜디오로 구성, 각각의 공간마다 색다른 재미와 감동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요 촬영지로, 올해 새롭게 조성돼 지난 11월부터 본격 개장한 1900년대 배경 세트장 선샤인스튜디오는 내·외국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꼭 가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11월 한국관광공사와 충청남도, SBS A&T 및 제작사와 선샤인랜드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드라마 촬영은 물론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논산을 찾은 모든 분들이 논산의 숨은 매력과 가치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논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 관광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민선7기 시민 행복의 속도를 높이다"

천안시, 10대 분야·26개 세부전략 등 선정

천안시가 민선7기 비전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하기 위한 4년간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구본영 시장은 17일 시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민선6기에 이어 시민중심 섬김시정의 실천의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선7기에도 '시민 중심 행복천안'을 시정 비전으로 정하고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민선7기 4개년 계획은 지난 4개월간 200인 원탁토론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과 천안시 정책자문단,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공직자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시는 ▲안심도시 구축 ▲스마트 교통체계 확립 ▲촘촘한 복지 실현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일자리 중심의 경제 육성 ▲균형있는 도시기반 확대 ▲농촌 경쟁력 강화 ▲건강한 녹색도시 확충 ▲공감행정 구현 등 10대 분야를 실현하기 위한 26개 세부전략, 443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향 제시가 아니라 재원 조달방안 수립 등 실천력을 전제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분야별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고용률, 일자리 창출 수, 기업유치 수, 지방 세수 확보 등 시민 체감지표도 함께 제시해 눈에 띈다.

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계획도 수립해 시정의 예측가능성과 실천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유연한 계획으로 운영해 정책 환경 변화와 시민의 바람에 따라 보완·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구본영 시장은 ""앞으로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저와 2천여 공직자들의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시민 삶의 행복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합문화공간 홍산공공문화체육회관 개관

지상 3층 연면적 996.46㎡ 규모 공연장·체육시설 등 갖춰

부여군은 홍산면을 중심으로 한 서부여 권역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에 홍산공공체육문화회관을 개관했다.

홍산공공체육문화회관은 지상 3층의 연면적 996.46㎡ 규모의 신축 건물로 1층에는 서부여 권역에는 전무했던 178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해 각종 행사나 강연회, 공연 등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층에는 4면의 탁구대를 갖춘 탁구교실과 3면의 당구대를 갖춘 당구교실, 3층에는 8개의 바둑판을 갖춘 바둑교실과 6개의 런닝머신을 포함한 30개의 헬스기구가 설치된 헬스장이 있다.

군민들이 유휴 시간을 활용해 건전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했고, 휴게실, 샤워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홍산공공체육문화회관은 홍산면을 포함해 남면, 옥산면, 충화면, 내산면, 구룡면 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바로 옆에는 홍산공공도서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홍산보건지소와 홍산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서부여 권역의 주민들이 쾌적하게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홍산공공체육문화회관은 유료로 운영되며 12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회원을 모집해 최종 내년 1월에 정상 운영된다.

공연장은 누구나 사전 예약을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대관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월 20,000원의 회비(6개월 10만원, 1년 18만원)를 내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 이외의 이용자는 3,000원의 일일입장권이 필요하다.

계룡시 범죄·감염병분야 안전 4년 연속 1위

지역안전지수 충남에서 최고·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입증

계룡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로 평가해 각각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계룡시는 7개 분야 중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는 1등급, 교통사고, 생활안전 등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는 등 충청남도 시·군 중 분야별 우수 등급(1~2등급)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범죄, 감염병 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였다.

시는 그간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 추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방역체계 강화 등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지역안전관리 강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룡시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도(자연재해) 평가' 1등급, 도로교통공단의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지수' 2년 연속 1위 등 안전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서천군 스마트 보안 설치 '군민 안전 확보'

범죄예방 시스템 확대로 사회적약자 보호·생활안전망 강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3개 모든 읍·면에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장소를 조사해 약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등산로, 산책로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했다.

13개 읍·면별 설치 개소 수는 ▲장항읍 6개 ▲서천읍 7개 ▲마서면 4개 ▲화양면 4개 ▲기산면 2개 ▲한산면 4개 ▲마산면 3개 ▲시초면 1개 ▲문산면 2개 ▲판교면 7개 ▲종천면 1개 ▲비인면 5개 ▲서면 9개소로 총 55개소이다.

군이 설치한 스마트 보안등은 설치 장소로부터 15~20m 이내 상황을 24시간 상시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탑재한 LED 보안등이다.

특히, 영상저장 및 확인 기능에 있어 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무선형식의 문제점이 보완된 함체형 유선방식으로, 보안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영상저장기간이 최대 30일까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군은 스마트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서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영상자료와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분담을 지정하고 설치 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도출해 대비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범죄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기능이 중요"하다며 "이번 보안등 설치로 군민의 심리적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의 안심 귀갓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정

유공자 시상 평가보고회

구본영 천안시장=18일 오후 2시 천안SB플라자에서 열리는 천안SB플라자 준공 기념 천안과학기술혁신포럼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농기계박람회 유공자 시상 평가보고회에 참석.

한글대학 수료식

황명선 논산시장=18일 오후 3시 건양대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8 한글대학 수료식에 참석.

통합보고대회

최홍묵 계룡시장=18일 오전11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보고대회에 참석.

수료식

노박래 서천군수=18일 오전 11시 서천특화시장에서 열리는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에 참석, 오후 2시 시초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물버들생태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 참석, 오후 3시30분 서천군보건소에서 열리는 금연서포터즈 수료식에 참석.

내산면 저동3리 사랑방인 경로당 준공

내산면(면장 오명근)은 지난 14일 저동3리 마을에서 박정현 군수를 비롯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저동3리 경로당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총 사업비 2억2천만을 투입해 대지 581㎡에 건물 30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날 완공된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을 포함한 저동3리 주민들은 다양하고 쾌적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혹한기와 혹서기에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정현 군수는 "새로 지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마음과 행복을 나누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강공식 저동3리 노인회장은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주민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평안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동 정

1사1촌 자매결연식

김동일 보령시장 = 18일 주산면 금암1리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1사1촌 자매결연식 참석, 오후 2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민원상담의 날, 오후 7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 참석.

재인천서산시민회 회장 이취임식

맹정호 서산시장= 18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리는 재인천서산시민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에 참석.

군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문정우 금산군수= 18일 오후 3시 상황실서 열리는 금산군군민소통위원회 위촉식에 참석.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8일 오전 10시 충청남도교육청 대강강에서 열리는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에 참석.

보령시 올해 청소년 자원봉사왕 선정

올해 보령시의 청소년 자원봉사왕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명민호 학생이 선정됐다.

보령시는 지난 15일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20회 청소년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갖고, 올 한해 자원봉사에 활발히 참여한 청소년들을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시켰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인 및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범 청소년을 선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청소년 우수 자원봉사자를 공모했고, 올 한 해 동안 활동한 자원봉사 실적과 활동내용 등을 동기 및 창의성, 지속성, 지역사회 공헌도, 자기성장 등을 감안해 입상자를 선정했다.

봉사대상에 선정된 명민호 학생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동아리 운영 ▲어울림마다 체험 부스 운영 ▲환경정화 및 문화체험,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와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대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유진 학생과 대천여자중학교 1학년 안성빈 학생이 각각 고등부와 중등부 최우수상을, 우수상에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2학년 임승빈 학생과 청라중학교 3학년 권미리 학생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활동상과 장려상, 우수사례 참가상 등 31명의 학생이 올 한해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시장은 "어려서부터 남을 위해 봉사하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해 오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은 물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보령 =김태선기자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공개 모집

공주시, 공정하고 투명한 급수공사 대행업체 운영으로 세간의 오해와 논란 불식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수도 급수공사를 대행하기 위해 운영해 온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허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허가 갱신 및 신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공주시에 영업소(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공주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내년 1월 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해 수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행업체 지정은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확인 등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해당 업체에 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정된 수도급수 대행업체는 허가일로부터 2년 간 공주시의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대행하며 급수신설공사와 누수 · 수도시설 파손 등의 응급복구를 추진하게 된다.

최인종 수도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최근 붉어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도과 수도행정팀(041-840-85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신풍면 대룡1리(무르실)

종합개발사업 준공식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 향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4일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공주시 신풍면 대룡1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4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10억원이 투입돼 무르실 역사관, 무르실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됐다.

특히, 기존 협소한 마을회관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무르실 역사관을 신축함으로써 마을공동이용시설 불편을 해소했으며, 무르실 공원내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주차장등을 조성해 부족했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했다.

김정섭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풍면 대룡1리 지내의 잘 갖춰진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주민교육, 동호회 활동, 문화 활동을 통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행복한 대룡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서산시 2018 농식품수출 최우수기관으로 우뚝

미주지역 딸기 항공 수출 등 110억 수출 달성

서산시가 2018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 충남도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충남도가 실시한 '2018년 농식품 수출 평가'에서 서산시는 수출 증가율, 독자적 시책 추진, 시장 개척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금년도 서산시의 농특산물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110억원 규모이다.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수출시장 흐름에도 서산시는 항공을 통해 미국시장에 딸기 수출 길을 열었고, 중국에서 점차 감소되어 가는 심비디움을 다육으로 전환해 수출 증가세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지속 해오고 있는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마케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주목하는 우수 사례이다.

시는 국내 삼진글로벌넷과 손잡고 현지 수입․유통업체인 미국 왕글로벌넷과 캐나다 Pan Asia Food를 협력 파트너로 확보했으며, 교포시장 공략을 위해 뉴욕 퀸즈한인회 등 미국 2개, 캐나다 1개 한인회와 협약을 맺고 교포시장을 꾸준히 넓혀 왔다.

이러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2015년부터 매년 미국과 캐나다의 10여개 한인마켓에서 동시 판촉행사를 개최해 행사기간 동안 약 8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남가주중청향우회에서 시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뉴욕 퀸즈향우회에서는 매년 형편이 어려운 서산 학생들을 초청해 글로벌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거대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산동성 웨이하이 환추이구와 유산시 2개소에 농특산물 홍보관을 설치 · 운영 중이며, 홍콩 · 베트남 등에도 안테나 숍 설치를 확정 해 놓고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수출은 단순한 외화획득만이 아니라,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라며 "국내 소비부진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어리굴젓, 생강한과, 양배추, 딸기 등 30여 품목의 농특산물을 미국, 호주, 중국 등 15개 나라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폐농기계 수거 시범사업' 발대식 가져

서산시, 농촌환경 개선 · 자원 재활용

서산시는 지난 14일 음암면 신장리에서 농협중앙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협업을 추진한 '폐농기계 수거시범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발대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 조소행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박응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등 협업기관 관계자 및 농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추진 경과보고, 서산시와 농협의 공동 결의문 낭독, 폐농기계 수거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은 서산시가 농협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으로 처음 시작한 폐농기계 수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방치된 폐농기계는 환경오염, 안전문제 등을 유발하며,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농기술의 발달로 폐농기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폐농기계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17개 농가를 선정해 경운기, 이앙기 등 34대의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 그 동안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사업은 서산시, 농협, 한국환경공단의 3개 기관 협업의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며, "우리시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각 지역본부를 통해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금산청소년미래센터, 제1회 비트브릭 코딩 경진대회 성료

창의적 사고 · 문제해결능력 함양

금산청소년미래센터에서는 15일 미래센터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제1회 비트브릭 코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앤미디어(비트브릭창의융합센터)가 미래센터와 함께 공동 주관을 하고 (주)헬로긱스, (주)리더스교육평가원 후원으로 진행됐다.

미래센터 코딩 프로그램 참여자와 제원초, 복수초, 중앙초, 진산중, 별무리학교 등 우리 지역 청소년 9개팀 총33명이 참석하여 열띤 경진을 펼쳤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비트브릭 코딩 경진대회'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비트브릭을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협동심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경쟁력을 증진하는 시간으로 다가섰다.

최우수상으로는 별무리학교 8학년 학생들이 수상했고, 공동 우수상으로는 별무리학교 7학년 학생들과 중앙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선정됐다.

금산청소년미래센터에서는 '비트브릭 코딩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스타트업 사업에 응모하여 인증프로그램으로 정식 승인(제 4512B02F-08016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약 400만원의 교구를 지원받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산청소년미래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시 크리스마스 무료 음악회 23일 개최

지역 출신 머드앙상블 초청 공연

보령시는 오는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무료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령예술(대표 백명선)이 주최하고, 공감연구소(소장 한면택)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라는 주제로 지역 출신 젊은 아티스트로 구성된 머드앙상블을 초청해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 해설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다슬의 사회로 진행되며, 예술의전당 서울챔버앙상블 협연의 피아노 백명선과 한성백제문화제 출연한 소프라노 복지은,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피아노과 교수 이상연, 독일 에신 폴방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비올라 전혜성 등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소프라노, 오보에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60분간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여인의 향기와 왈츠, 오페라 유령, 겨울왕국 렛잇고 등 주옥같은 곡이 연주되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공연 관련 문의는 보령예술(010-2842-4280)로 하면 된다.

한편, 머드앙상블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량을 가진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돼 있으며, 제19회 만세보령문화제 및 제25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막 연주를 맡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펼쳐오고 있다.

보령=김정미 기자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 차달래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고아가 된 자신을 복남이 데려다 키운 사실을 알게 된 대영은 복남에게 큰절을 올린다. 고백까지 한 마당에 이대로 차이는 건 억울하다면 세 번 만 자신을 만나보라는 창호의 제안을 받은 미래는 진옥을 응원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홈쇼핑 모델로 발탁된다.

▲ 강남 스캔들 (SBS 오전 8시20분)

"내 마음속에 저장"

금희에게 살갑게 대하는 서준을 본 소유. 이전에도 서준이 금희를 병원에 데려가 준 걸 알게되며 점점 서준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 비켜라 운명아 (KBS1 오후 8시25분)

시우(강태성)는 쓰러진 진아(진예솔)의 곁을 지키느라 안회장(남일우)의 49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수희(김혜리)의 화를 산다. 승주(서효림)는 진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남진(박윤재)이 뛰쳐나가자 서운해하는데...

케이블 명화

▲ 불한당 (OCN 오후 10시00분)

범죄조직의 1인자를 노리는 재호와 세상 무서운 것 없는 패기 넘치는 신참 현수는 교도소에서 만나 서로에게 끌리고 끈끈한 의리를 다져간다.

출소 후, 함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의기투합하던 중, 두 사람의 숨겨왔던 야망이 조금씩 드러나고, 서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믿는 놈을 조심하라!
믿음의 순간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불한당이 된 남자
더 잃을 것이 없기에 불한당이 된 남자
이곳에서 남자들의 시너지가 폭발한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은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불한당이 된 남자(재호)가 더 잃을 것이 없기에 불한당이 된 남자(현수)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의리와 의심이 폭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두 남자가 가까워지고 부딪히며 발생하는 시너지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의 백미다. 교도소에서 의리를 나눈 두 남자가 사회로 나와 조직의 실세가 되는 과정 속 '마약 밀수'를 단초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 맨 인 블랙 2 (채널CGV 오후 3시30분)

지구에 침투한 외계인을 감시, 관리하는 미연방 일급 비밀기관인 맨 인 블랙(MIB). 활동적인 뉴욕 경찰인 제임스는 어느날 검은 양복의 낯선 인물 케이를 만나고 MIB 본부에 들어와 비밀요원 제이로 탄생한다. 외계에서 온 다양한 생명체들을 심문하던 중 은하계의 악명높은 테러리스트인 에드가가 불법으로 지구에 잠입한 사실을 알게 된다. 지구의 별망을 가져오는 은하계의 전면 전쟁을 막기 위해 MIB 팀은 에드가를 찾아내 우주 평화의 신비가 담긴 구슬을 빼어야만 한다. 힘겨운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제이와 케이의 노력에 평화를 되찾게 된다.

지구에 잠입한 외계인을 감시하는 MIB 요원 제이. 요원 케이가 MIB를 떠난 후 많은 파트너들과 호흡을 맞추지만 베테랑 케이의 빈자리가 크기만 하다. 또 다른 수다쟁이 요원 프랭크는 파트너라기 보다 오히려 제이를 거추장스럽게 하며 말썽만 피울 뿐인데. 그러던 중 25년 전 MIB에게 당한 복수를 위해 마이크로 우주선이 지구에 침입한다. 콜라캔 크기의 우주선에서 내린 외계 생명체는 여성지 모델로 자신을 복제하고 MIB 아지트에 침입한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8:10 나우 유 씨 미 2
10:40 프리스트
13:20 주토피아
15:20 위자: 저주의 시작
17:20 잭 리처 2: 네버 고 백
19:40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22:00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 채널 CGV
2:30 도가니
5:00 알포인트
7:30 에베레스트(2015)
10:00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13:10 아빠는 딸
15:30 맨 인 블랙 2
17:30 고질라(2014)
20:00 관상
22:50 택시운전사

◈ Mnet
5: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7:10 M morning
8:00 썸바디
9:50 2018 MAMA in HONG KONG 베스트 퍼포먼스
12:10 썸바디 스페셜
13:4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30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18:00 썸바디 스페셜
19:30 Daily Music Talk (SMS)
20:20 2018 MAMA PREMIERE in KOREA
23:00 인싸채널 체리블렛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2018 NFL
13: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5: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7:00 2018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19:00 18-19 프로농구 CLUTCH TIME
19:30 18-19 SKT 5GX프로농구

◈ SBS 스포츠
11:00 2018 AFF 스즈키컵 하이라이트
12:00 2018 아시안게임
14:00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5:40 2018 AFF 스즈키컵 10분 하이라이트
16:00 18-19 V리그남자부
18:00 주간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 V리그남자부

◈ 온스타일
6: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7:30 겟잇뷰티 2018
9:40 신혼일기
11:1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3: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5:30 겟잇뷰티 2018
16:4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7:50 밥블레스유
18:50 식샤를 합시다 3 : 비긴즈
20:10 식샤를 합시다 3 : 비긴즈
21:20 대탈출
22:50 꽃청춘위너
23:50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ㄱㅇ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톡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라인10
12:00 재테크, 알아야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1:30 대부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아시아 헌터
13: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4:15 이주의 법칙
14:45 잠베지 계곡의 사자와 악어
15:45 인도호랑이 쿠말의 여정
16:45 TV 동물농장
19:00 아시아 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1:00 <BEST PICK>지니어스

음악 · 애니

◈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 소풍
10:00 MBC MUSIC HIT SONGS
12:10 쇼! 음악중심
13:30 언더나인틴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창작의 신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9:00 주간 아이돌

◈ 애니맥스
6:00 바이클론즈 5
7:00 아울은너무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썬&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1:00 유후와친구들3
12:00 터닝메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5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 JEI 재능방송
6:00 고고다이노 시즌2
7:00 이야기배달부 동개비
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9:00 파워캐치 윈다 part2
10:00 뽀롱뽀롱 뽀로로5
11: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 ARC-V
15:00 플레이징 틴스5 part2
16: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1기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MBC 220-2348~9 ▶TJB 281-1101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30 은혜로운 말씀	6:00 한국기행
7:50 인간극장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50 비밀과 거짓말	7:40 모닝와이드	7:30 시청자뉴스	6:20 세계테마기행 7:00 레이디 버그
8:25 아침마당	8:00 KBS 아침뉴스타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30 강남 스캔들	8:00 뉴스와이드	7:30 로보카 폴리
9:30 KBS 뉴스	9: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9:10 좋은 아침	8: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9:00 메디컬 인	7:45 꼬마버스 타요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0:50 특선만화 퐁뎅이 뎅이	10:1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9:3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8:00 딩 동댕 유치원 8:30 엄마 카투리
11:0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11:00 땐 뽀걸즈	11:50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스페셜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0:00 김회영의 이슈앤 이슈	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2:00 KBS 뉴스 12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제보자들	12:00 12 MBC 뉴스 12:20 경성판타지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11:00 행복비나리	9:00 방귀대장 뿡뿡이
1:00 KBS 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0 KBS 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1:20 UHD 스페이스 강원 1: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 교실 1:55 2시 뉴스 외전	2:00 뉴스 브리핑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9:40 부모-위대한 엄마
2:0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3:25 프리파라3 3: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1:20 최자영 시인 내안에 그대 1:30 문화창	10:30 한국기행
4:00 사사건건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4:25 판다랑 4:55 5MBC 뉴스	4: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00 무악전기 2: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5:00 삼청동 외할머니	5:15 최충우돌 만국 유람기	5:00 SBS 오뉴스	3:00 CMB 뉴스 3:50 청곡 박일규의 묵향	12:00 EBS 정오 뉴스
6:00 6시 내고향	6:00 KBS 경제타임 6:40 2TV생생정보	6:15 생방송 오늘 저녁	6:00 영재발굴단	4:00 행복비나리	12:10 미스터리 휴먼다큐
7:00 KBS 뉴스7 7:35 이웃집 찰스	7:50 끝까지 사랑	7:15 비밀과 거짓말 7:55 MBC 뉴스데스크	7:00 생방송 투데이	5:00 김회영의 이슈앤 이슈	12:40 지식채널 e
8:25 비켜라 운명아	8:30 글로벌 24 8:55 1대 100	8:5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8:00 SBS 8뉴스 8:55 본격 연예 한밤	6:00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뉴스	13:35 뷰티풀 코리아
9:00 KBS 뉴스9	10:00 땐 뽀걸즈	10:00 나쁜 형사	9:00 SBS 8뉴스	7:15 최자영 시인 내안에 그대 7:30 CMB 집중토론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0:00 시사기획 창 10:55 UHD 숨터	11:10 볼빨간 당신	11:00 PD수첩	10:00 복수가 돌아왔다	9:00 뉴스와이드	14:2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1:00 오늘밤 김제동 11:40 특집 다큐 2부작 생활체육 두갈래의 길			11:10 불타는 청춘	10:00 문학의 향기 10:30 메디컬 인	14:55 모피와 친구들
				11:00 행복비나리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상자
					16:15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 동댕 유치원1
					17:05 딩 동댕 유치원2
					17:15 엄마 까투리
					17:3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8:2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2
					18:25 호기심 나라 오키도
					18:40 생방송 톡! 톡!보니 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슈퍼
					18:55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4
					19:00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19:50 극한 직업
					20:40 다큐 오늘

"2018년의 대미를 장식하다"

제9회 청양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3일 청양 우성 게이트볼장에서 12개 분회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청양군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 청양군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게이트볼대회 개회식에서는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해도 비봉게이트볼 회원이 청양군 체육회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예선전은 링크제로,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한 결과 ▲우승 남양분회(회장 이의성) ▲준우승 철마분회(회장 윤화원) ▲공동3위는 운곡분회(회장 노진호)와 장평분회(회장 이효신)가 차지했다.

유성현 게이트볼협회장은 "2018년도는 우리 게이트볼협회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의미 있고 뜻있는 한 해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게이트볼 공처럼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협심하며 열심히 운동하자"고 말했다.

김돈곤 군수는 "2018년도 청양군 게이트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양군의 게이트볼 동호인은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인원이지만 실력은 월등해 어르신들이 자랑스럽다"며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예산 덕산고, 서울스페셜올림픽코리아 통합배구대회 전국 2위

장애-비장애학생 서로 보듬는 감동의 경기 펼쳐

예산 덕산고등학교(교장 차덕환) 지난 15일부터 2일간 천안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8 서울스페셜올림픽코리아 통합배구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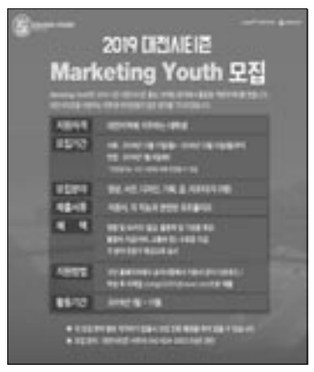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장애 · 비장애 학생의 6인제 통합배구대회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그 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전국대회로써 덕산고 10명의 선수 '붕클' 팀으로 참가했다.

장애학생 4명, 비장애학생 6명으로 구성된 '붕클' 팀은 평소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켜 왔으며 지도교사이자, 사제지간인 오정환 선생님과 명혜정 선생님의 지도로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통합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대회에 참여했던 이건우 학생(덕산고 학생회장)은 "꾸준한 연습으로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았고 서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나누게 되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대전시티즌, 2019 대학생 객원마케터 모집



대전시티즌이 2019 시즌을 함께할 대학생 객원마케터를 모집한다.

'Marketing Youth'로 명명된 대전시티즌의 객원마케터는 영상, 디자인, 사진, 글, 기획, 리포터 등 총 6개 부분에서 선발이 진행되며, 선발된 이들은 2019 시즌 프로 및 유소년 선수단 관련 콘텐츠 제작, 홈경기 운영회의 참가, 각종 이벤트 기획 등 프로구단 업무의 실질적인 경험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Marketing Youth' 프로그램의 모집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방법은 구단 홈페이지(www.ddf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안나 알베로 : Ana Albero in Korea 전

롯데백화점 대전점 9층 전시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내년 1월 11일-30일까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백화점 휴점일 휴관) 9층 롯데갤러리에서 안나 알베로 : Ana Albero in Korea 전을 개최한다.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안나 알베로(Ana Albero) 작가는 스페인의 지중해 도시 알리칸테에서 태어나 베를린 예술대학교 UdK(Universitat der Kunste)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독립 출판사 '에디션 비오그라픽 치온(EditionBiografiktion)'을 설립, 간행물과 휴먼 뉴스(human news)를 비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개인 작품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Ana Albero in Korea'는 작가가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온 작업에 대한 결과물로 베를린에서의 작업물 뿐만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작업했던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은 아카이브 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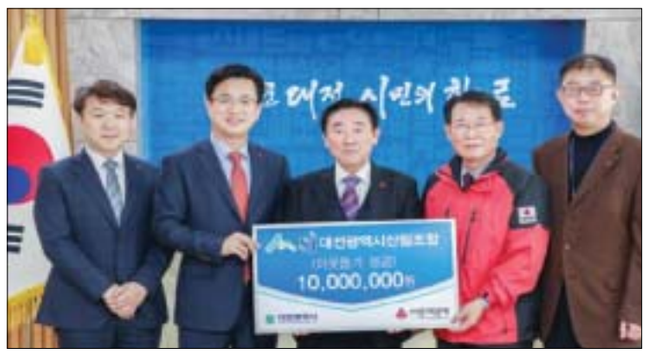
송병배기자

보령정심학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작은 음악회

보령정심학교(교장 정수영)는 지난 15일, 대천 관리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천관리역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학생오케스트라 단원과 지도 강사, 교직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행객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다.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9 대표이사 안 경 호
Tel. 042-528-1801 / Fax. 042-528-1833
Mobile. 011-429-6377 / e-mail. kyungho0710@nate.com www.sw-motors.com

MSL 레저용품 전문점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자이글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보드보드 · 전동휠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 재 종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8-6 TEL : 042)488-3030 · 486-7070
FAX : 042)472-3685 H · P : 011-406-6960 Website : www.mslsports.co.kr



대전시 산림조합,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전시는 17일 대전시 산림조합(조합장 홍주의)으로 부터 '희망2019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 받았다. 이날 기탁식에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홍주의 대전시 산림조합 조합장, 안기호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산시 '희망2019 나눔' 모금 활동 전개 아산시 온양1동(동장 김만섭)은 14일,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2019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집중 모금행사를 개최했다.음봉면(면장 김희원)은 14일 음봉면주민자치센터에서 「희망 2019 나눔캠페인」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를 가졌다.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14일(금)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적십자특별회비를 전달받았다.

금산제일장로교회, 아가페 카페 수익금 500만원 기탁 금산제일장로교회 아가페 카페(대표 양승백)는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카페 수익금 500만원을 금산군에 기탁했다.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지부 '사랑나눔 봉사활동'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지부(지부장 김경식)는 지난 14일 공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소망공동체를 찾아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건강관리협회, 군인, 의경 금연지원사업 성과대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 1박2일간 제주도에 소재한 난타호텔에서 2018년도 군인, 의경 금연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

한남대 역사교육과 '대상 · 최우수상' 수상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문화재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가 주관한 '2018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대상(1등)과 최우수상(2등)을 각각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이 학과 '보란 듯이' 팀(구윤지, 김수진, 이다인, 이재원, 정유진 학생)은 과거의 한을 담은 아리랑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현대인의 한이 담긴 아리랑을 만들며 아리랑의 유네스코적 가치를 전승하는 활동을 했다.

이 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을 지키는 청년 지킴이이다.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봄' 팀(정주영, 진솔, 김은지, 이연재, 정진주 학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지키는 청년 지킴이로 평화의 의미를 담은 기록물을 교육, 홍보, 배리어프리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알리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키는 활동을 했다.

수상한 학생들은 전국 단위의 청년 지킴이들 가운데서도 1, 2등을 같은 학과에서 함께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활동을 펼치며 더욱 성장하고 우리 유산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유성구 노은2동 전통무용반 '효 나눔행사'

대전복지장기요양센터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

대전시 유성구 노은2동(동장 백준흠) 전통무용반(강사 최민희)은 지난 14일 진잠동에 위치한 대전복지장기요양센터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효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아리랑, 난, 성주풀이 등을 공연하면서, 문화예술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회공동체 의식 회복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어르신들은 연말을 맞이하여 전통무용 공연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 하였다.

한기연 총무는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으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이번 공연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확대하여 행복한 노은2동이 되는 데 다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원중 한분은 공연중 어르신들을 보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신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김정환기자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생명수 공급"

중구새마을부녀회 식수 준공식 거행

중구새마을부녀회(회장 민희영)는 지난 10일~16일까지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주 시스폰시 끼업초등학교에서 식수 준공식 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11일 끼업초등학교에서 부주지사, 시장, 면장, 학생 및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우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주지사를 대신해 부주지사는 "이곳 먼 곳까지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고 민희영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우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식수1기와 학교도색, 학용품 및 체육용품을 전달해 어린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중구청에서 기증받은 컴퓨터 10대를 전달해 조기에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병배기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2018 사업 성료

'여성 문화 활력소'로 자리 잡아

서산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센터장 김영제, 이하 서산시여성회관)은 오는 26일 로시니 오페라 '모세' 상영을 끝으로 올해 사업을 모두 성황리에 종료 예정이며, 2019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 여성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산시 여성대학, 육아+워킹맘 프로젝트, 동아리 육성 및 지원 사업, 음악공연 극장 등이 있으며 연간 130여개의 프로그램과 행사에 1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지역 내에 성인들을 위한 많은 유사기관이 있던 상황에서 설립되어 초창기에는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서산시 여성대학', '교육나눔 기브유'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서대학교와도 협력하여 전문교수진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제 센터장은 "여성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며 "남성과 가족단위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누구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15일(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과 민주노총 희망노조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부임원 및 조합원, 육군학사장교 대전, 세종, 충남지구회 봉사단과 함께 뜻을 모아 화합하여 대덕구 관내 어려운 장애인 2가정에게 연탄500장씩 1,000장을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 드리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박봉관기자

"참다운 봉사로 행복한 겨울을 보내요!" 청양군정산면새마을지도자회(협의회장 박영수)는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를 실시했다.집 앞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취임

신임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17일(월)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진숙 심임청장은 취임사에서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 사업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복도시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포부와 함께 ▲국가행정중심도시 완성 ▲주변지역와의 상생발전 ▲혁신성장 기틀마련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세종=김태선기자

호서대 산업디자인, 美 SPARK 국제디자인 대상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산업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최근 미국 '2018 SPARK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2014년, 2016년 수상 이후 3번째다.

스파크(SPARK) 공모전은 IDEA, Red Dot, If 디자인 등과 함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디자인공모전이다.

산업디자인전공 3학년 노상윤과 강성민 학생은 영양조절을 해주는 캡슐을 커미메이커처럼 카트리지식 장착이 가능한 밥솥 디자인 컨셉으로 SPARK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인 플래티넘을, 장석봉 학생은 초단초점 프로젝션 워크데스크 디자인 컨셉으로 동상인 브론즈를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 학생들은 평소 자취를 하며 전기밥솥을 사용하다가 생각하게 된 작은 불만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매 끼니마나 거의 먹게 되는 밥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고 아이디어를 내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두 학생은 앞으로도 독일 Reddot 디자인, iF 디자인 어워드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합리적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칼 럼

철저한 관리 요구되는 '골프 직무연수'

강철수 객원논설위원

시도교육청 가운데서는 '골프'를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교원 인사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골프 연수를 직무와 관련 없는 교원들이 상당수 수강하고 비용도 지원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위탁 연수기관으로 지정한 A단체는 7년째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골프를 가르치고 있다.

80만원의 비용으로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골프 자세 교정이나 필드 라운딩, 학생 지도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교원들이 이 직무연수를 45시간 받으면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되고 연수 결과는 성과급이나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그런데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교원이 골프연수를 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골프 직무연수'를 받은 교장과 교감은 전체의 15%, 700명이 넘는다. 또한 이들 수강생 중에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지 않는 장학사나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은 물론, 미술이나 생물, 영양교사 등 '골프'와 관련 없는 과목 교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직무연수'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없다며 크게 문제될 것은없단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과 크게 연관이 없는 골프를 직무연수로 지정하는 건 옳지 않단 의견도 많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골프를 직무연수로 지정하지 않고 있고, 경북교육청도 지난해 골프가 학생 직접 지도과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골프 직무연수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다.

직무연수 명목으로 골프를 치지만 골프와 전혀 관계없는 교사들이 많다보니, 이들의 취미활동에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교육당국의 보다 철저한 연수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기 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다면

양 창 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며칠 전 친구에게 정기 모임 참석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다. 키우던 강아지가 심장 판막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 약속 취소의 이유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아지 소식을 전하는 친구를 위로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람의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새삼 실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52만 가구의 29.4%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시장은 6조 원으로 커졌고 가구 내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 분야다. 현재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14세 정도, 사람으로 치면 대략 70대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소가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동하고, 사료와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자들이 늘면서 수명은 늘었으나,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험도 인기 급상승이다.

선진국에선 첨단기술이 반영된 반려동물의 셀프 놀이기구 제작사업이 붐을 이루는데 투자자들 주로 보험회사들이라고 한다.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무병장수해야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려견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기초로 반려견의 주요 폐사원인과 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품종별 수명과 체중의 관계, 주요 폐사원인 등을 분석해 국민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연구를 추진 중인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우리나라 반려견의 질병 발생 현황을 조사해 왔다.

연구진이 서울과 전주, 11개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의 실제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질병 발생률은 피부염·습진, 외이염, 설사, 구토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나이별로는 3살 이하에서 설사와 구토 발생 비율이 높았고, 4살 이상은 피부염·습진, 외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7살 이상은 심장질환, 신부전, 유선종양,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등 진행성, 퇴행성 질환 발생이 크게 늘어,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동물병원에서 쓴 카드 결제액은 7864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8억 원 늘었다고 한다. 반려견의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자료를 활용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반려견 나이대별로 주의해야 하는 질병을 미리 챙길 수 있다. 아울러 수의사는 진료에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와 산업에 활용한다면 반려견 노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반려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작은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존중 연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말도 드리고 싶다.

기 고

보이스 피싱! 범죄수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및 집전화로 뜬금없이 자신도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다.

자식이 납치되어 있으니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가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범죄를 보이스 피싱이라고 부른다. 즉 최근 보이스 피싱범들은 세련된 목소리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맞춤형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한국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3000억가까이 되는 것으로 작년의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다. 이처첨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 및 피해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경찰은 금융기관 및 여러 민원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주로 하는 방법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화로 경찰 검찰 등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는 행위, 보안카드정보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 수법으로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을 요구하거나 현금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현재 이자보다 적은 비율의 이자로 대출해 줄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가족 등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메모 등 주변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외국 거주자의 경우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나 경찰의 도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112, 1332번으로 신고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해야한다. 아무런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며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해액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이스 피싱은 누구 한명에 대한 범죄라고 볼수 없다. 그만큼 모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그 예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 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에너지 안보를 흔드는 위기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 증거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은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이 전력망을 연결해 한국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처음 주장한 이후, '동북아 수퍼그리드'도 불리고 있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북한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이후 전력 당국과 여당 등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는 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전기를 끊거나 망이 붕괴되면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탈원전의 정확한 이유다.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이다.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인 탈원전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홍보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68%가 원자력 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를 결정하면서 탈원전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여서 관심이 증폭됐다. 원자력계는 이런 의견이 에너지 기본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실시한 것으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다. 이 조사는 원자력학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만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향후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해 응답자의 35.4%가 '늘려야 한다', 32.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5%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물음에는 '찬성' 69.5%, 반대' 25%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57.6%, '안전하지 않다'가 36.8%였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44.8%)와 '못하고 있다'(46.5%)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에너지 정책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경우도 특정 정당의 지향점이나 신념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자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물론 세계의 흐름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원전 굴기'론이 한창이다. 원전을 속속 재가동하기 시작한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대기업, 원자로 제조사 등 민관 공동으로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다. 미국은 어떤가. 탈원전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첨단 원자력 연구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탈원전을 외치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적인 문제이자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앞으로의 지향점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같은 숙고의 과정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게 순리다. 에너지 문제를 안전과 환경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다.

시민주권 미세먼지 대책 17개 과제 집중 추진

세종시, 어린이·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 정책 역량 집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 미세먼지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현재 미세먼지 측정값을 1시간 단위로 표출하던 것을 30분 단위 표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7일 시청 집현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시민의견이 반영된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위원 22명과 시청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운영성과로 시민제안 과제를 토대로 미대위가 추진하기로 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집합교육 등 17건이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어 내년 집중 추진과제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대책 8건 ▲민감계층 보호 대책 5건 ▲교통분야 대책 4건 등 총 17건을 선정, 내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대책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 미세먼지 교육 홍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공공실내놀이터 사업, 미세먼지 학부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공기정화기 설치 및 필터교체 지원, 공기정화기 사용 의무화, 미세먼지 경보발령 임시휴업 시 돌봄기능 등은 강화 추진된다.

민감계층 보호 대책으로는 민감계층 및 실외근무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어린신 시설 공기정화기 보급 및 미세먼지 교육이 신규 과제로 추진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례를 내년 상반기 내 제정하고, 2020년 운행제한 시스템을 설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미세먼지 대책에 반영·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미대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LH, 기술용역 품질향상 위해 낙찰하한율 인상 추진

중소 용역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역규모에 따라 최고 12.5% 인상

용역 적정대가 지급 보장, 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LH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방문하여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하여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가, 고시금액인 2.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가, 고시금액인 2.1억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금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용역대가 대비 인상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채기병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야구협회
2019년도 협회장기 리그모집

리그진행

리그일정 : 2019년도 2월 중순 개막
경기시간 : 2시간 (10분전 새 이닝 불가)
경기 수 : 14경기 진행
경기진행 : 2심 1기록제 (게임원 실시간 기록)
리그방식 : 풀리그 방식(리그별 1위~4위팀 플레이오프)

모집요강

1차모집 : 2018년 11월 12일 ~ 2018년 12월 30일 까지 접수
(기존 회원사 부터 우선 접수 받습니다)
2차모집 : 2018년 1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까지 접수
선착순 우선순위

토 요 리 그		
	토요 3부	토요 4부
모집 팀수	15개 팀	15개 팀
규정	• 중출1명 출전 가능 (투 · 포수 불가) • 성출나이제한(만42세)1명 출전가능 • 중출도 선출로 인정 (중출 · 선출 1명만 경기 가능) • 3부 2개팀 이중등록 가능 (개인기록 1개팀 인정)	• 비선출 (신생팀 및 순수 동호회) • 2부 선출 투 · 포수 불가 • 4부 2개팀 이중등록 가능 (개인기록 1개팀 인정)

엘 요 리 그		
	엘요 3부	엘요 4부
모집 팀수	15개 팀	15개 팀
규정	• 중출1명 출전 가능 (투 · 포수 불가) • 성출나이제한(만42세)1명 출전가능 • 중출도 선출로 인정 (중출 · 선출 1명만 경기 가능) • 3부 2개팀 이중등록 가능 (개인기록 1개팀 인정) • 15개팀 이상 모집 시 플레이오프 6개팀 진행 (1-6,2-5,3-4)	• 비선출 (신생팀 및 순수 동호회) • 2부 선출 투 · 포수 불가 • 4부 2개팀 이중등록 가능 (개인기록 1개팀 인정) • 15개팀 이상 모집 시 플레이오프 6개팀 진행 (1-6,2-5,3-4)

문의 및 참가 확인 전화 또는 게임원 게시판 참조

010-4442-7752 (서구야구협회 김태선 사무장)
010-2220-9968 (서구야구협회 김형태 심판장)